

교회 성인교육의 대안으로 예배 학교 운영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 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송지훈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17년 5월

Copyright © 2017 Jeehoon Song

All rights reserved.

## ABSTRACT

A Study of Worship School as a Context of Adult Faith Education: A Case of Young Adult  
Ministry of Eunsung Church in Namyangju, Korea

Jeehoon Song

Eunsung Church, Kunggi-Do

This study comes from worry and reflection about adult education in church. The purpose of study is to show the importance of adult education while performing worship school in local church to enhance adult education, looking at positive and negative responses in the church and in the community.

Associated literature for the study depends on literature study involving arrangement and analysis. In my thesis, I want to examine the definition of adult, searching for the nature of the classified adult (adolescence middle-aged, the old) in the need of adult education and look through aspect about historic, social, church. For the most of all, I want to emphasize the necessity of adult education, using bible educated character.

Dealing with the worship, essential part of church, the educational goal is that believers should know God in the true of church and worship, dealing with worship education, recovery of worship in the adult education,

Therefore, the vital part of this paper is dealing with worship education, the essence of worship, old promise and covenant And I educate Eunsung church located Namyangju, Korea making the best of the theory based on theoretical part called “worship school.” And it turns out that it has positive impact on the change of person, the degree of influence about Christians, impact on the whole of church, assessment about priests, committees through

doing a survey

Even though there are many good programs about having adults having socialized in the church context, this paper gives new paradigm and suggests that worship school can give many believers many benefits containing awareness about identity and connection between social person and the church.

## 국문초록

### 교회 성인교육의 대안으로 예배 학교 운영

송지훈

은성교회, 경기도

이 연구는 교회 성인 교육의 대한 고민과 반성으로부터 시작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회 성인교육에 근거한 대안으로 ‘예배학교’ 세미나를 진행 하였다. 특별히 지역교회에서 실행했을 때, 그 교회 안에서 개인의 변화, 가정의 변화, 교회 공동체의 변화를 긍정적인 반응 부정적인 반응을 설문조사 하였다. 교회 성인들을 위한 예배 교육의 중요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교육받은 이들이 교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관련된 문헌들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분석하는 문헌연구에 의존하였다. 먼저 성인이란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성인’에 대한 이해를 해보고, 다음으로 성인을 분류(청장년시기, 중년, 노년시기)로 나눠 특성을 살펴 본다. 그러면서 성인교육의 필요성안에 역사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 교회적인 측면의 세가지 측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성서적인 인물들 중 성인 교육받은 인물들을 찾아 보면서 성인교육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성서적인 교회 성인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예배’ 부분을 다룬다. 교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교육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경험 속에서 개인의 회복과 가정의 변화 국가와 사회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도의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본 논문의 본론 부분에 예배의 본질을 다룬다. 그리고 성서적인 관점을 보고자 구약과 신약의 예배 공동체를 정리

한다. 또한 예배 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면서 예배 교육의 원리를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이론적인 부분을 실제로 예배의 교육을 ‘예배학교’라 하여 세미나를 계획하고 진행하였다.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60년 역사를 가진 은성교회에서 실제로 청장년층들을 대상으로 교육해보고, 이에 따른 세미나를 마친 후 설문지를 통하여 1) 개인의 변화, 2) 성도들에게 영향력의 정도, 3) 교회 전체적인 영향력 등등을 살펴보았다. 특별히 담임목사의 평가, 위원회(당회장로)의 평가, 교인들의 평가에 이르기 까지 구체적으로 교육받은 이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비춰지는 지 주변에서 느낀 점 등을 또 하나의 사례로 하여 데이터화 하였고, 조사하였다. 결론적으로 설문지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좋은 영향력이 있었음을 답을 얻게 되었다.

본 논문은 하나님을 가장 깊게 만나는 예배 안에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하고, 예배의 교육 즉 ‘예배 학교’라는 교육을 통해 한 개인이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신앙공동체도 변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정체성의 인식이 뚜렷한 사람이 사회적인 한 사람으로써 사회의 중요한 인격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세상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을 기대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 목 차

감사의 글 .....	x
표 목차 .....	ix
<b>I. 서론</b> .....	1
연구의 목적 .....	1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연구의 진행 .....	6
<b>II. 성인교육의 이론적 기초</b> .....	7
성인의 이해와 분류 .....	7
성인교육의 필요성 .....	29
교회 성인교육의 성서적 근거 .....	33
<b>III. 예배 학교의 이론정리</b> .....	38
예배의 본질 .....	38
예배 교육의 이해 .....	50
예배 교육의 필요성 .....	55
<b>IV. 프로젝트 계획과 실행</b> .....	67
프로젝트 설명 .....	67
교재의 내용 및 활용방법 .....	68
프로젝트 구성 .....	70
<b>V. 결과 분석</b> .....	72
결과 .....	72
평가 .....	92

배운점 .....	99
<b>VI. 결론</b> .....	101
요약 .....	101
제언 .....	103
부록 .....	104
참고문헌 .....	147

## 표 목차

<표1> 설문조사 참여 대상 .....	74
<표2> 예비학교의 영향력 .....	75
<표3> 예비학교를 통한 예배 생활 유익 .....	76
<표4> 예비학교를 통한 예배자 유익 .....	77
<표5> 예비학교를 통한 예배 중요성 인식 .....	78
<표6> 예비학교를 통한 예배 자세 .....	79
<표7> 예비학교를 통한 설교 경청 자세 .....	80
<표8> 예비학교를 통한 성찬과 세례의 의미 .....	81
<표9> 예비학교 후의 예배 분위기 .....	82
<표10> 예비학교 후의 대표 기도자 기도시간 .....	83
<표11> 예비학교 후의 예배 지각 .....	84
<표12> 예비학교후의 예배 태도 .....	85
<표13> 예비학교 후의 예배 마음 .....	86
<표14> 예비학교 후의 예배 경험 .....	87
<표15> 예비학교후의 가정예배 .....	88
<표16> 예비학교후의 기도시간 .....	89
<표17> 예비학교후의 주일에 대한 마음가짐 .....	90
<표18> 예비학교후의 신앙훈련 프로그램 .....	91

## 감사의 글

먼저 본 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본 논문을 완성할 수 있기까지 배울 수 있도록 기회주시고, 많은 만남을 통해서 알게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함께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과 지혜와 시간을 주시지 않고, 기도로 돕는 사람들을 붙여 주시지 않고, 환경을 열어 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므로 가능한 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본 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지도해 주신 감리교 신학대의 김영래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성경통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신 조병호박사님과 드류대의 레너드 스윗 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목회 현장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실행평가를 진행하도록 배려해주신 은성교회 담임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특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협력해 주신 당회 장로님과 교육 프로그램에 동참해 주신 성가대 대원과 청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곁에서 기도와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부모님과 사랑하는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17. 4.

송 지 훈

## 제 I 장

### 서 론

#### 연구의 목적

“모란은 이 시대를 '성인들의 관심이 종교적인 것으로부터 점차 그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커가는 시기'<sup>1</sup>라고 표현했다.”

이와 같이 성인교육은 20C 후반의 주된 관심사로서 개념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전엔 인간이 성인기에 도달하면 연령에 따르는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모든 능력이 일률적으로 쇠퇴한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생각해 왔다.<sup>2</sup> 그러나 사람들이 전(全) 생애를 통하여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화한다는 것이 아주 분명해졌기 때문에 교육자들은 각 개인들이 성인기를 통해서 교육받아야 한다고 결론짓게 된 것이다.<sup>3</sup> 더군다나 기독교인으로 성인들은 예수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존엄성을 의미를 발견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성숙한 신앙관을 확립하여야 한다. 모든 삶의 영역인 가정, 교회, 국가에서의 자신의 역할 수행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

<sup>1</sup> Gabriel Moran, *Education toward Adulthood* (New York: Paulist Press, 1979), 14.

<sup>2</sup> 윤진, *성인 노인 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85), 2.

<sup>3</sup> T. S. John, "The Challenge of Adult Christian Education" in R. B. Zuck and G. A. Gets, eds., *Adult Education in the Church* (Chicago: Moody Press, 1980), 10.

또한 삶의 과정 속에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의 사건들과 문제들에 직면하여 선택하고 결단하며 책임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숙의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삶을 실현해 나가는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대위임령(大委任令)<sup>4</sup> 아래 교육적 사명을 안고 있는 교회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사건들 속에서 참여,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도록 도와야 한다. 교회가 성인들에게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들을 돕고 사회의 문제들을 보다 잘 이해하며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성과 통찰력을 제공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sup>5</sup>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 세상에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교육하고, 성인들을 돕는 역할을 끊임없이 지속해야 할 것이다. 사회성을 가진 인간은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 답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려 한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진행하다 보면 한계에 다다르게 되고, 더 복잡한 문제를 일으킬때가 많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삶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갖게 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모든 문제를 화평하게 풀어가도록 교육해야 하는 것이다.

성인은 성장세대에 대한 교육적,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안고 있으며, 현재의 교회와 사회, 더 나아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평생 교육의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배움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에 와서 특히 중년기의 삶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sup>6</sup> 중년기는

<sup>4</sup> 마태복음 28:19-20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sup>5</sup> 제롤드 W. 에프스, *교회의 성인교육을 어떻게 개선할까?* 김재은 역 (서울: 킨콜디아사 1984), 11.

<sup>6</sup> Ibid., 82.

중년으로서의 현재적 삶뿐만 아니라 인생을 정리하는 의미 깊은 노년기의 삶과 죽음에 대한 심리적 준비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더욱이 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바 청소년 교육 이전에 그들의 부모이며 교육책임자인 중년 부모들을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교회 안에서 청소년과 그 부모인 중년 성인의 조화로운 삶을 돕는 프로그램, 기독교 가정 건설의 비전을 제시해 주는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신앙교육이 활성화되고 건전한 기독교 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회는 중년기의 성인이 한 개인으로서 직면하는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가치와 존재의미를 발견하며 주체성을 확립하도록 도와야 한다. 아울러 잠재된 은사를 개발하여 이웃과 교회에 유익을 주고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증인의 삶을 실천하도록 도와야 한다. 성인들의 교육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후 세대들에 대한 본이 될 사람들이 성인들이기 때문이다. 부모 세대의 교육이 자녀들의 사회성과 인생관에 영향을 준다. 그렇기에 후세대를 위한 건강한 자녀들을 이끌어 내기 위해 부모세대 즉 성인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교회는 성인들과 접촉한다. 그러나 교회교육에서는 성인들이 소외되어 왔었다. 즉, 교회의 성인들을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은 크게 개발되지 못하였다.<sup>7</sup> 이러한 성인교육 부재현상의 이유를 김재은은 “첫째, 신앙공동체 본질에 대한 몰지각과 신앙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다. 둘째, 성인의 삶에 대한 무지이다. 셋째, 성인학습과정의 비인간화이다”<sup>8</sup>라고 말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

<sup>7</sup> 김재은, *성인교육론* (서울: 성광문화사, 1990), 10.

<sup>8</sup> *Ibid.*, 10-12.

전통적인 성인교육의 형태로서 부흥회, 사경회, 구역예배 등을 시행해 왔으나 교회 안에서의 섬김과 중생의 체험,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만남만을 강조해 왔다.

그러므로 성인이 이웃과의 수평적 만남 속에서 복음과 관련하여 인격의 성숙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지 못했으며 더욱이 세상문화와 복음과의 관련성을 찾지 못하였다. 이에 많은 이원적 갈등이 초래되어 점차 참여도가 감소되어 왔다.<sup>9</sup>

지금은 성인교육에 대한 재각성과 함께 각 교회가 평신도교육, 성서대학, 제자훈련 등의 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성인교육의 일면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적 삶의 실현의 도움이라기보다는 교회의 내적 결속을 다져 교회를 튼튼히 세우려는 필요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성인들에게 주입식 강의법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단순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재생산을 위한 일종의 전문인이나 기능인의 양성방법으로만 인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낮은 참여도를 보이고 있고 성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교육을 통하여 성인이 자신의 현재적 삶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바른 말씀의 진리 위에 자기를 확립하여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아서 삶의 실현을 도와주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세상을 향한 당당한 신앙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므로써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선교적 과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교회의 근본 모토인 성도가 온전케 되며, 봉사의

---

<sup>9</sup> 김태원, "선교 100주년을 향한 한국교회의 바람직한 방향 설문조사," 부산일보 (1982년 11월 26일).

일을 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sup>10</sup> 목적이 성취되도록 도와야 한다.

따라서, 배움의 주체인 성인에 대한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과 그 목적을 인식하고 여러 측면에서 접근한 성인에 대한 인간이해와 독특한 학습심리가 응용된 프로그램들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기독교 성인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인의 시기를 좀더 분석하면서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등의 시기를 파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배움의 과정 속에서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여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실현을 돕는 기독교 성인교육의 개념을 갖고자 한다. 특별히 성인교육가운데 예배 안에서 신앙의 본질적인 기초를 배우면서 신앙인의 자세를 갖추게 하기 위하여 예배학교 시스템을 운영하여 각자가 신앙의 성숙을 이뤄내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논문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성인 교육의 성격을 알아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남양주 은성교회 청장년층 50명을 성인교육의 예배학교를 운영하여 그들의 간증과 신앙고백으로 통한 변화를 얻어내고자 한다. 2장에서는 교회 성인교육의 기초로 이론적 기초인 성인의 이해, 성인교육의 필요성, 성인교육의 성서적 근거를 살펴본다. 여러 전문적인 보고자료와 논문, 그리고 관련 서적을 통해 성인에 대한 전체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3장에서는 예배의 의의 등의 기본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는

---

<sup>10</sup> 에베소서 4:12.

예배 교육의 이해, 그리고 예배 교육이 중요한 이유, 예배 교육의 원리 이 부분을 다룬다.

4장에서는 남양주 은성교회 청장년층 50명을 '예배학교' 세미나를 통한 교육교재의 내용을 삽입했다.

5장에서는 결과 분석적인 단계로 예배 학교의 분석, 세미나 후의 예배에 자신의 변화, 평가와 배운점 등을 제시한다.

## 연구의 진행

남양주 은성교회 성인교육 리서치를 통해 프로그램 제시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성인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과 대안은 한국 교회 교인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훈련시킴으로서 교회의 예배중심적인 삶의 변화된 개인, 가정, 국가의 변화를 기대하기 위함이다. 즉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제자로 사명을 감당하며 성장하여 복음의 사람답게 삶을 살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교회마다 예배 학교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식상하고 일반적인 예배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앞에선(코람데오) 하는 예배자로서 개혁을 이루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예배를 통한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어 가정의 변화와 사회, 국가의 변화를 이룩할 수 있는 성인교인이 되게 하는데 희망을 갖으며 논문의 연구와 진행과정을 갖고자 한다

## 제 II 장

### 교회 성인 교육의 기초

#### 성인의 이해와 분류

교육에서 그 대상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교육을 피교육자를 현재보다 더 나은 상태로 이끌어 주는 작업이라고 이해할 때, 얼마나 가르쳤느냐하는 것 보다 피교육자가 얼마만큼 배웠느냐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성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선행 될 때만, 그에 따른 교육 방법과 내용을 결정하게 되며, 바람직한 결과들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성인에 대한 이해 없이 아동 교육과 동일한 방법인 폐даго지적 교육 방법을 가지고 성인들을 교육하려 할 때 효율성을 잃은 교육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성인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성인이해를 살펴보기로 하자.

#### 성인이란 누구인가?

성인(Adult)이란, 성숙에 이른다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 동사 "*adolecere*"(청년이 되다)에서 유래 된 "*adultus*"의 과거 분사형이다.

이 말은 성인은 자라서 어른이 되었음으로 더 이상 성장하거나 발달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포하며, 별 변화가 없는 연령기를 암시하는 좁은 의미에서의 성인에 대한 정의이다.

그러나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성인은 나이를 먹는 일, 다시 말하면 나이를 가지고 성인이나 여부를 따지느니 보다는 성숙되어 가는 것, 성숙한 것으로써, 도덕적, 영적 성숙의 이상적 상태를 가리킨다. 이것은 성인이 된다는 것은 성인의 책임을 받아들일 위치에 있을 때부터이며, 성인은 문화의 생활방식을 유지시키는 여러 활동들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이가 있다고 해서 결코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수준과 사리분별력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갖추기가 바로 성인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이가 있어도 지적장애로 인하여 생각수준이 어린이라 할 때 상담용어로 '성인아이'라 하여 표현하기 때문이다. 나이와 몸은 성인이지만 지적 수준이 아이인 장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 성인이라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지적분별력의 성숙성을 이야기 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여년간 성인기에 대한 괄목할 만한 학문적 연구가 시도되었다. 이러한 성인기에 대한 연구는 학습자의 연령층의 특성을 연구하는 성인 교육자들 뿐만 아니라, 문학, 사회학, 인류학, 사학 그리고 신학을 포함한 여러 종교학이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며, 이들은 모두 성인기에 당면하는 문제와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적 노력들에 깊은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성인은 신체의 발육을 마친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성인이란 신체적으로는 발육을 마치고 재생산의 능력을 가지며 사회적으로는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인은 각각의 개인적 독특함을 갖고 있으면서 그 시기마다 공통적인 특징을 소유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세로 보지만 서양의 미국과 같은 문화권에서는 성인을 18세 이상으로 연령층이 낮게 하여 성인으로 인정한다. 그 이유는 자립심과 사회성을 더 키우려는 경제적인 문화권의 방식인듯 하다. 성인의 특성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종교적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sup>1</sup>

첫째, 신체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인 초기엔 신체가 완전히 성숙하여 최고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능숙한 조절과 통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40대 후반부터는 점진적으로 체력이 감소된다. 20대에는 신체적으로 상당한 강한 힘과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식욕도 높고, 피로도 금세 회복되는 특징을 갖는다.

둘째, 정신적 특성은 목적 성취를 위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력을 형성하며 분별력과 이해력 및 문제 해결에 대처하는 능력들이 점진적으로 능숙해진다. 정신적 특성은 신체적 특성이 성인 후기로 갈수록 점차 감소하는 것과 반대로 성인 후기로 갈수록 이성과 경험에 의한 판단력, 이해력은 점차 원숙해진다. 정신력은 사실 젊을수록 창의적이지만 상당히 여러 혼란을 겪는다 하지만 나이가 차고 정신적인 수양이 늘어갈 때 신중하면서도 덜 실수를 하게 되는 노화우를 얻게 되는 특징이 있다.

셋째, 사회적 특성은 성인 초기에는 사회적 활동이 증진되는 시기로 폭넓은 인간 관계를 형성하며 협동적이고 우애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또한 중기에 이르러서는 대부분 지도자와 책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욱 활동적인 사회 생활이 요구된다. 후기에 이르러서는 활동력의 둔화로 유대 관계가 축소된다. 20대의 사회성은 상당히 쉽고, 편하게 관계를 형성한다. 하지만 후기가 될수록 쉽지 않다. 왜냐하면 유대관계가 상당히 좁아지는 한편 사회적인 활동이 적어지기

---

<sup>1</sup> 김국환, *기독교교육사역론*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93), 230-236.

때문이다.

넷째, 정서적인 특성은 초기에서 중기로 갈수록 정서가 풍부하고 내적인 통제적 기능이 원활해지나 후기에 가서는 은퇴나 자녀의 출가로 인한 불안과 위기를 느끼게 된다.

다섯째, 종교적인 특성은 초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보다 심도 있는 신앙 생활을 추구하며 점진적으로 원숙한 신앙의 상태를 형성한다. 후기에 이르러서는 생애의 가장 진실하고 진지한 삶의 모습을 형성하게 된다.<sup>2</sup> 오랜 연수의 신앙을 가진 권사, 집사, 장로들을 보면 그 신앙의 깊이와 연륜으로 많은 부분에서 겸손하게 배움을 얻게된다. 그이유는 그동안의 인생 속에서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해주심을 그들을 삶 속에서 물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 생물학적 특성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성장, 성숙해 간다. 20대에 들어서도 성장하는 이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10대의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모든 성장이 완성된다고 보아도 좋을듯하다. 10대 청소년들은 급속하게 신체적으로 성장이 빠르다. 키가 크고 몸이 커져 성인의 체형이 되어 가는 시기이다. 그들은 성적인 욕망이 용솨음치듯 솨아올라 곤란을 겪기도 한다. 얼굴에는 여드름이 생기고 목소리가 변하여 당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간은 일생을 살면서 성장하는데 보다는 노화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 대략 인생의 4/3에 달하는 기간 동안 노화가 진행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태내에 있을 동안에 가장 급속한

---

<sup>2</sup> Ibid.

성장이 일어나고 유아기와 아동기에도 성장이 빠르게 일어난다. 그 이후 성장이 점차 느려지다가 21세가 되면 정점에 달하게 된다. 성장은 이제 내리막길을 달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신체적으로 성장이 완결된 상태의 성인이 맞게 되는 신체적 변화가 있다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쇠퇴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맞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 쇠퇴는 신체적인 면뿐 아니라 감정적인 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성인의 감각은 전반에 걸쳐 쇠퇴현상이 일어난다. 그 중에 시각과 청각의 변화는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대개 40~50사이에 접어들면서 시각의 변화가 오게 되므로 밝은 조명을 필요로 하게 되며, 쇠퇴해 가는 청각을 위해서는 보청기나 확성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가장 노화의 반응이 큰 감각은 시각과 청각이다. 잘 안보이다보니 인상을 찌뿌리게 되고, 그러므로 자연스레 눈가의 주름도 생기게 된다.

둘째, 나이가 들수록 중추신경 개통에 변화가 일어나 반응시간이 지체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늙어가면서 신체적 능력이 감소되고, 만성적 질병에 시달리게 된다.

특히 성인교육과 연관해서 볼 때 가장 심각한 질병은 심장병과 두뇌장애인데, 이런 질병은 두뇌에 혈액공급 장애를 불러일으키고, 뇌 손상으로 기억력 및 사고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sup>3</sup> 이러한 만성적 질병들은 결과적으로 진통과 피로를 동반하게 되며 그로 인해 학습동기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

<sup>3</sup> 박봉수, *교회의 성인교육*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0), 59.

### 심리적 특성

때로는 청소년들은 폭발할 것 같은 공격적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의 기분은 커다란 환희에서 우울하고 의기소침한 상태로 왔다 갔다 한다. 또한 10대 청소년의 특징은 불만이 많다는 점이다. 그는 학교에 대해 그리고 자기의 부모와 동년배들에 대해 불평한다. 사실상 그의 생활에서 정말로 만족스러운 것은 거의 없다. 그리고 10대 청소년은 균형 잡힌 견해로 사물을 바라보는 데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는 자신이 거쳐 온 아동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또한 미래를 명확하게 예측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다. 그는 대단히 내성적이 되고,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또 다른 자기만의 세계에 완전히 몰두한다.

성인기에 접어든 이들 역시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문제들에 직면함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인기라고 하면 심리적 안정을 연상하지만, 성인기라고 해서 다 안전성과 증후함을 갖는 것은 아니다. 성인기가 청소년만큼 동요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아에 대한 의문과 관심의 형태는 같으며, 자아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과 의문 역시 강렬하게 일어난다. 성인들은 이 시기동안에 다음과 같은 여러 질문들을 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 왔는가? 내가 해왔던 것이 가치가 있는가?  
나는 지금의 나의 모습을 계속 원하는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하기를 원하는가?”<sup>4</sup>

다음으로 성인의 심리적 특성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지능발달에 대한 것이다. 성인의 지능발달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장 주목할

---

<sup>4</sup> 짐 콘웨이, *남자나이 마흔이 된다는 것*, 한성열 역 (서울:학지사, 1992), 146.

것은 웨체슬러(D. Wechsler)의 연구이다.<sup>5</sup> 그는 성인의 학습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가장 흔히 사용되는 도구 중 하나인 WAIS(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 어휘능력 테스트로부터 물건 조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테스트로 구성된 창안했다.

이 연구 결과 그는 신체의 성장 정지와 마찬가지로 정신능력은 대체로 연령과 더불어 감소한다고 믿게 되었다. 이러한 믿음을 근거로 하여 "늙은 개에게는 새 기술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것과 "지적 능력의 성숙이 40살을 정상으로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그 능력이 줄어든다"는 두 가지 허구적인 신화들이 등장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최근의 끊임없는 연구결과 인간은 개가 아니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청각, 시력 등의 신체적 장애가 있기 하지만 성인 되어서야 비로소 터득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적능력의 성숙도가 40살이 종착점이라는 말의 허구성을 증명해냈다.

끝으로 성인의 기억능력에 초점을 두고 연구되고 있는 인지발달 부분을 살펴보자. 성인의 기억은 구조적 특성을 갖는다고 받아들여지는 바, 감각적 기억과 단기적 기억 그리고 장기적 기억이 그것이다. 감각 및 단기적 기억은 저장량이 적고 저장시간이 짧은 반면 장기적 기억은 거대한 저장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일생동안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인의 기억과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나이 먹은 성인은 새로운 자료를 조직하는데 덜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다음으로 나이든 사람들은 먼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명확하게 기억할 수

---

<sup>5</sup> D. Wechsler, *The Measurement and Appraisal of Adult Intelligence* (Baltimore: Williams & Wilkins, 1958). 박봉수, *교회의 성인교육*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60에서 재인용.

있지만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을 회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이든 성인은 낮은 수준에서 저속으로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한다는 것이다.<sup>6</sup>

#### 학습자로서 성인의 특징

인간이 가진 천부의 욕구 중에 가장 지속적인 욕구 중 하나가 바로 배우고자 하는 욕구라고 한다. 인간의 지능이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 전체에 걸쳐 안정적이라는 것을 앞에서도 살펴본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역시 너무나 많은 성인이 잘못된 신화들을 붙들고 있음으로 인해서 학습의 장애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육체적인 면, 즉 청각, 시각 등의 능력은 떨어지지만, 성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배우고자 하는 욕구는 성인 생활에 아주 공통적 측면이며 기초적인 욕구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성인은 본질상 학습자이다. 노울즈는 "학습이란 진정한 삶의 자연적이고, 정상적이며, 유기적인 부분이다.... 성인은 진정으로 배우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배움을 추구한다"<sup>7</sup>고 진술한다.

성인교육학자인 알렌 토프(Alan Tough)가 성인이 무엇을, 왜 배우며, 그들이 원했던 배움을 위하여 어떤 도움을 얻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성인의 학습 과정을 연구하는 중에 그는 "90%의 성인 인구가 일년에 최소한 한가지라도 학습했으며, 이

<sup>6</sup> 박봉수, *교회의 성인교육*, 61.

<sup>7</sup> Malcolm Knowles, "Adult Learning Process : Pedagogy and Adragogy," *Religious Education* 72 (1977), 205.

중 73%는 자기 스스로 계획한 것이었다”<sup>8</sup>고 보도 했다.

토프의 연구에서 특히 흥미 있는 것은 고수준 학습자(High LEARNERS)에 대한 것이다. 수준 높은 학습자란 1년에 약 2000시간의 학습을 하며 15내지 20개의 과업을 마치는 사람을 말한다. “학습이 그들 생활의 중심 활동 이며 그런 사람들은 엄청난 성장을 기록했다”고 그는 말한다.<sup>9</sup>

오늘날에도 대학교와 사회단체들에서 성인을 위한 평생 교육 개발원 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 역시 성인들이 교육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배우기를 원하는 성인 학습자의 특성에 관한 많은 연구가 최근 계속적으로 있어왔다. 그 결과 학습 집단은 연령층별 특성과 발달과업을 가지고 있으며, 학습자로서의 성인도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차갑부씨는 최근 연구를 종합해서 성인 학습자의 특성을 다음 7가지로 정리했다.<sup>10</sup>

첫째, 성인들은 선택적으로 학습상황에 참여하게 된다. 성인은 학습에 선택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와 관련되는 명백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성인 학습자들은 자신의 욕구와 관련되는 수업상황을 기대한다.

둘째, 성인은 다양한 생활 경험을 가지고 학습상황에 들어간다. 나이든 학습자일수록 경험이 더욱 풍부하다. 수업이 학습자의 경험과 관련될 때 학습은

<sup>8</sup> Alan Tough, *Reported in Malcolm Knowles, The Adult Learner : A Neglected Species* (TX: Gulf, 1975), 36, John L. Elias, Sharan Merriam, *성인교육의 철학적 기초*, 기영화 역 (서울: 학지사, 1998), 179에서 재인용.

<sup>9</sup> Ibid.

<sup>10</sup> 차갑부, *성인교육방법론* (서울: 양서원, 1994), 84-85.

더욱 촉진된다.

셋째, 성인들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어떤 특정 기술을 배우거나 어떤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습에 참여한다.

넷째, 성인은 자기 주도적 학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어릴 때 교육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목표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와 관련되는 것을 행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새로운 학습상황에 들어오는 성인이나 학교 졸업 후 몇 년 있다가 학습상황에 돌아오는 성인들은 두려움이나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의존적인 행동을 나타내게 된다.

다섯째, 나이드은 성인은 독특한 신체적 요건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밝은 조명, 안락한 의자, 큰 글자 및 소리를 필요로 한다. 그들은 또한 어떤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여섯째, 성인은 확고한 가치 및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아울러 그들의 가치 견해 및 사상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인을 지도하는 교수자들은 형식적 권위자 내지 전문가의 역할이 아니라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일곱째,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성인은 보다 훌륭한 학습자이다. 따라서 환경은 긍정적 자아 개념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 성인의 분류

교회가 성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자 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성인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성인의 특성을 살펴서 그에게 맞게 교육할 수 있고 교육 내용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레빈슨은 성인의 발달단계를 구분하기를 성인초기(22~40세), 성인 중기(40~60세), 성인말기(60세 이상)으로 구분하면서 계절과 계절사이의 약 5년간을 겹치는 과도기로 보고, 각 계절을 3단계(도입기, 정착기, 과도기)로 보고 있다(단 17세에서 22세까지를 성인 초기 과도기로, 22~30세까지를 성인세계 도입기로).<sup>11</sup> 뉴우만은 성년 초기를 20~30세, 성년중기를 31~50세, 성년후기를 51세 이상으로 보기도 한다.<sup>12</sup> 학자들간의 차이는 조금씩 다른 편이다. 레빈슨은 각 계절에 들어 있는 단계를 거쳐갈 때마다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달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특별히 발달과없이 있다고 했다. 사람마다 꼭 같은 단계의 변화를 겪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연령에 따른 발달과업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 청장년시기 - 신체적인 특징

이 시기는 가장 역동적인 시기이며 생리적 기능이 최고로 달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이 시기는 경쟁적인 사회생활과 직장 생활에서 오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 과음 등과 운동 부족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기 쉬운 때이다. 또한 이 시기는 연령이 자꾸 증가하면서 신체적 균형이 깨어지기 쉽고 그럴 경우 청년기보다 회복이 늦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 시기에 일어나는 신체적 쇠퇴 현상은 신체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리적 갈등과 삶의 의욕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적절히 처리하는 것이 문제를 직면한 당사자들의 과제이고 이들을

---

<sup>11</sup> 김재은, *성인교육론*, 95.

<sup>12</sup> Barbara M. Newan & Philip R. Newman, *Development Through Life: A Psychosocial Approach* (Belmont, CA: The Dorsey Press, 1975), 19.

지도하는 지도자들의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sup>13</sup>

### 청장년시기 - 사회, 심리적인 특징

이 시기는 점차 폭 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사회적 활동이 증진되는 시기로서 협동적이고 우애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직장과 사회의 여러 모임 속에서 증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부분적인 책임자의 위치에 있게 된다. 직장 속에서의 동료들과의 적절한 관계형성과 가정에서의 가족관계 등은 이 시기의 사회적 특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sup>14</sup>

에릭슨은 이 시기를 가리켜서 친밀감 대 고립감의 시기라고 했는데,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주요한 발달과제라고 했다. 배우자를 찾아서 고유된 정체감을 느끼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발달과제 때문이기도 하다.

만일 이전 시기에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한 사람은 보다 쉽게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감을 느끼게 되어 자기 자신에만 몰두하게 되기도 한다.<sup>15</sup> 이 시기는 자신과 타인의 정체성의 동질성을 통한 친밀감을 느끼게 되며 동료의식이 강한 대신에 고립감에 빠지기 쉽다.

자신을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 생각된다. 사회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sup>13</sup> 권용근 외, *기독교교육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193.

<sup>14</sup> 김국환, *기독교교육사역론*, 231.

<sup>15</sup> 유안진, *인간발달 신장* (서울:문음사, 1994), 54.

자신의 자존감이 온전하지 못할 때 많은 부분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우울증과 자기비하의 성향으로 자신 스스로가 소외감을 갖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 청장년시기 - 종교적 특징

이 시기는 자아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에 대해 중요한 선택이 이루어지는 때이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그에게 있어 한 부분을 차지하느냐 아니면 자기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에 의해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는 것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또 이 시기는 복음의 확신을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복음의 요구에 대해서 자아를 개방하지 않으려는 유혹을 받는다.<sup>16</sup>

이성적인 판단이 서있는 시기 가운데 종교적인 신념이 이 시기에 자리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신의 인생관을 신앙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개인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에서,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과울러는 청장년기의 사람들을 자기 자신들의 신념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갖게 되는 신앙 발달의 제 4단계에 해당하는 개별적-반성적 신앙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했다. 이 단계는 이전의 3단계 종합적-인습적인 단계가 붕괴되기 시작하고 권위와 관습에 의존해 오던 신앙의 태도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적 가치를

---

<sup>16</sup> Jesse H. Ziegler, *심리와 교회교육*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86), 90.

주장하고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다 분명한 가치관과 확고한 신념을 제시하는 신앙공동체를 선택하고자 시도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곧 신앙적인 가치관이나 선택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sup>17</sup>

#### 청장년시기 - 지적인 특징

이 시기의 지적인 특성으로는 신체적인 면에서는 청년기에 비해 능력이 감소되지만 학습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는 별로 저하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시기는 일생 중 교육받을 수 있는 가장 풍부한 시기로 알려져 있다.<sup>18</sup> 미국 심리학자인 쏘다이크는 청년이나 35세 이상의 성인집단 사이에서는 학습능력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심리학자는 25~65세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sup>19</sup> 이러한 점들은 성인들을 위한 교회교육이 보다 활발하게 계획되고 또 제공되어야할 근거가 된다고 하겠다.

#### 청장년시기 - 정서적인 특징

성인 초기의 정서적 특징은 섬세하면서도 보다 안정적인 상태로 그리고 원망하고 중립적인 성격으로 형성된다. 그러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일정한 역할을

---

<sup>17</sup> J. W. Fowler, *신앙의 발달단계*, 사미자 역 (서울: 한국장로회총회교육부, 1986), 288.

<sup>18</sup> 권용근 외, *기독교교육개론*, 194.

<sup>19</sup> Ibid.

수행하고 있는 성인들은 간혹 바쁜 일들로 인한 취미 생활이나 정서적인 생활의 결여로 정서적 상태가 불안정할 수도 있다. 이때 신체적인 결함이나 장애로 인하여 청소년기에 정서적인 내면화가 강하게 형성된 경우에는 성인이 되어서도 정서적 안정을 회복하기 쉽지 않을 수가 있다.<sup>20</sup>

또한 이 시기는 강한 성취욕망으로 사회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애를 쓴다. 때로는 강한 욕망이 성취되지 않을 때 좌절하기도 하고 불안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혼외정사나 도박에 빠지기도 한다.

#### 중년시기 - 신체적인 특징

레비슨의 구분대로 하면 성인 중기는 40~60세 정도의 연령에 해당된다. 이 시기는 '퍼지는 40대', '실속 없는 40대', '로맨스 그레이', '제 2차 사춘기' 등의 별명이 많이 붙는 시기이다.<sup>21</sup> 지금까지의 삶의 과정과는 다른 변화가 많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시기는 외적인 면에서 점점 머리카락이 희어지기 시작하고 머리가 벗겨지게 되고, 시력이 감퇴되어 안경을 쓰게 되며 여성들의 경우에는 갱년기 증상 등이 나타나는 때이다.

성인 중기에는 자신의 몸에서 힘과 에너지가 줄어들며 성적인 힘과 능력도 줄어들음을 체험한다. 노화의 상태가 개인에 따라 차이가 많으며 노화의 대부분은

---

<sup>20</sup> 김국환, *기독교교육사역론*, 85-116.

<sup>21</sup> 권용근 외, *기독교교육개론*, 196.

신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나타난다.<sup>22</sup> 점차적으로 체력이 약해지기 시작함에 따라 관절염, 고혈압, 소화불량과 같은 질병이 찾아오기도 한다. 그러나 급격한 신체적인 감소현상은 보통 나타나지 않는다.

### 중년시기 - 사회, 심리적인 특징

성인 중기는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기이며 생의 제 2의 전환기이다. 이 시기는 성취하는 말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직업이나 사회적 명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자신의 일과 성과를 통화여 그들의 열매와 영향력이 최고에 달하게 된다.<sup>23</sup>

에릭슨에 의하면 이 시기는 생산성 대 침체감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 개인이 처한 분야에서 생산성을 제대로 발휘해서 성과를 올리게 되면 성취감을 맛 보게 되며 더욱 의욕적으로 자기가 처한 분야에서 일하게 되지만 그러나 생산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거나 발달시키지 못할 경우는 침체감이 형성된다고 한다. 그럴 경우는 타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의 욕구에 더 치중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타인에 대해서도 관대하지도 못하게 된다.<sup>24</sup>

이 시기에 여성은 성인 초기에 어느 정도 자아정체감의 위기를 해결했으나 결혼 후 10여 년을 지난 성인중기에서는 자기 실존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 이때 찾아오는 공허감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자기 인생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초조감과 불안감을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

<sup>22</sup> Ibid., 197.

<sup>23</sup> 김재은, *인간발달의 과정* (서울: 진명사, 1983), 148.

<sup>24</sup> 유안진, *인간 발달 심리*, 55

시기의 여성은 심한 우울감과 불안을 느끼게 된다.<sup>25</sup> 또 남성들도 이 시기에 성취감을 느끼지 못할 경우 여성이 느끼는 자아정체감과는 다른 것이지만 우울감과 불안을 느끼게 된다.

### 중년시기 - 종교적인 특징

이 시기는 벨안트(Vailant)에 의하면 성인초기에 쇠퇴했던 종교적인 관심과 활동이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시기이다. 그는 이러한 신앙적인 관심을 하나님의 형상이 내면화된 부모로서 형성된 것이라고 했다.<sup>26</sup> 분명한 것은 이 시기에 와서 신앙의 상태가 상당히 원숙하게 형성되어 간다는 것이다.

화울러(Fowler)의 견해에 따르면 이 시기에 오면 성인초기 때의 "이것이나/저 것이나"의 이분법적 논리를 초월해서 결합적이고 통합적인 신앙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된다.<sup>27</sup> 곧, 다차원적인 자기인식, 상호적 관점, 사고의 다양성, 개방성, 상호의존성에 바탕을 두어 긍정적으로 관심과 대화를 통해 성취해 가는 신앙단계이다.<sup>28</sup> 곧, 이 것은 이전 단계에서 자기 확실성, 실제에 대한 의식적인 인지적, 정서적 적용에 대한 관심으로 인하여 억압되었거나 또는 인식하지 못하였던 많은 것을 자아와 조망으로 통합하는 시기이다.<sup>29</sup>

---

<sup>25</sup> 권용근 외, *기독교교육개론*, 199.

<sup>26</sup> John L. Elias, *The Foundation And Praticce of Adult Religious Education* (Malabar, FL: Krier Publishing Company, 1993), 80.

<sup>27</sup> Fowler, *신앙의 발달단계*, 296.

<sup>28</sup> 김국환, *기독교교육사역론*, 234.

<sup>29</sup> Ibid., 517.

교회는 이 시기에 성인들을 부분적으로 편협적인 지도보다는 균형적인 신앙을 형성할 수 있도록 또한 삶과 신앙의 조화로움을 이룩하도록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회 성인들은 교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모든 성인들에게 적당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참여와 봉사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sup>30</sup>

#### 중년시기 - 지적인 특징

성인 중기는 학습 능력이 성인 기초 보다는 다소 감소하지만 지속적인 학습을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 학습 능력 면에서 성인 중기는 암기력에서는 성인 초기보다는 뒤질 수 있지만 종합적인 이해와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식의 습득은 훨씬 더 학습에 유용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sup>31</sup>

#### 중년시기 - 정서적인 특징

이 시기는 정서적으로 비교적 안정이 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신체적인 병화와 사회적인 요인, 가정적인 변화에 의해 위기와 불안감이 조성되기도 하고 우울증적인 증상으로까지 가기도 한다. 정서발달 과정에서 성인초기의 변화가 큰 것처럼 성인 중기의 청장년기의 신체적, 정서적 특징을 버리고 인생의 새로운 시기로 들어가는 시기이다.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성인 중기는 지금까지 쌓아온

---

<sup>30</sup> Ibid., 234.

<sup>31</sup> 권용근 외, *기독교교육개론*, 198.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판단과 함께 비교적 안정적인 정서로 일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하다.<sup>32</sup> 그러므로 이때는 안정감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삶의 목표를 추구하며 도전해 볼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다. 그럼으로 이 시기의 성인 지금까지의 성취감이 비록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지라도 침체감 속에 빠지고 말고 시행착오와 경험을 근거로 해서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 노년시기 - 신체적인 특징

이 시기는 우선적으로 체력의 감소가 현저하다고 할 수 있다. 의학의 발달과 그리고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신체적인 감소현상은 부인 할 수 없는 때이다. 또한 신체적으로 약해짐으로 인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되어 질병이 자주 발생하며 빈번한 성인병은 이 시기의 성인들의 활동에 많은 제약을 주기도 한다. 특히 호흡기와 순환기의 기능이 약해진다. 이러한 순환기 계통의 기능 약화는 동맥경화증과 같은 혈관 계통의 질병을 야기 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감각기능에도 감소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신체적인 약화는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고 심리적으로도 무력해지게 하는 요인이다.<sup>33</sup> 근장에 와서는 노인의 치매는 본인과 가족들에게 큰 어려움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 노년시기 - 사회, 심리적인 특징

---

<sup>32</sup> Ibid., 198-199.

<sup>33</sup> Ibid., 201.

노년기는 급격한 신체적인 약화현상과 사회적, 경제적인 활동의 정지로 인한 극심한 무력감에 빠지기 쉬운 시기이다. 또한 이 때는 여러 방면에서의 은퇴와 함께 오는 생활의 변화 때문에 이제는 이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마음에서 좌절감에 빠지고 우울감과 고독감을 많이 느낄 수 있다.

도빈슨의 지적과 같이 노인들은 사회로부터 잊어져가는 존재로서 적응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로 인해 대인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스스로 고립되거나 대화의 장애를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sup>34</sup>

에릭슨은 이 시기를 가리켜 통합성 대 절망감의 시기라고 규정했다. 즉 신체적인 노쇠와 직업에서의 은퇴, 친구와 배우자의 사망 등이 개인으로 하여금 인생의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은 자신의 신체적, 사회적인 퇴보를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sup>35</sup>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온 길을 되돌아 보면서 자신이 살아온 가치를 음미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삶이 무의미 한 것이었다고 생각하게 되면 심한 절망과 무력감에 빠지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감을 극복하고 생의 의미를 깨닫고 자신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게 되면 보다 차원 높은 지혜와 경륜의 단계에서 자신의 삶을 통합시켜 나갈 수가 있다.<sup>36</sup>

#### 노년시기 - 종교적인 특징

---

<sup>34</sup> 김국환, *기독교교육사역론*, 236.

<sup>35</sup> Ibid., 201.

<sup>36</sup> Ibid., 56.

노년기에도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목표를 정해서 도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체로 이 시기는 인생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기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삶의 관점에서 보게 될 경우에는 에릭슨이 말한 것처럼 통합적인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에릭슨은 노년기의 위기 곧,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과거의 실패, 절망 등의 위기의 종교성의 차원에 대해 설명했다. 노인의 어린이 같은 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에 관련을 시킨다. 이것은 노년기에 취하는 단순한 신앙적인 관심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종교적 경험의 완전성의 회구를 의미한다. 물론 이것은 모든 노년기의 성인들이 취하는 보편적인 자세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당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신앙적인 면에서 이 시기는 성숙된 신앙의 관점을 기대하게 되는 시기이다. 화올러가 신앙발달 6단계 중 5번째 단계를 결합적(종합적)신앙의 단계로 구분하면서 이 단계는 적어도 성숙한 성인의 신앙의 단계로 보았는데 이 단계가 자아의식과 세계관이 통합되는 단계, 생각과 경험에서 양극화되는 데서 연합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sup>37</sup>

노년기의 단계를 따르면 인생의 가장 말년의 단계는 가장 성숙한 단계인 보편화된 신앙의 단계로서 나에 대한 집중력을 초월하고 포용성 있고 충족된 인류 공동체를 위한 삶을 추구하는 가장 고차원의 단계를 기대하지만 이러한 차원에까지 이르는 사람은 드물다고 말한다.<sup>38</sup>

---

<sup>37</sup> 김재은, *인간발달과정*, 119.

<sup>38</sup> Ibid.

### 노년시기 - 지적인 특징

노년의 정신기능은 신체적인 퇴화와 함께 일어난다. 노년기의 지적 특징은 일반적으로 첫째, 기억력이 감퇴되는데 최근의 것보다 과거의 것을 더 잘 기억한다. 둘째, 노인의 추리력은 연령보다는 그의 경험이나 지식에 더 의존한다. 셋째, 중년기에서 시작되는 기능적 고착은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더욱 고착되어 간다. 넷째, 어휘력의 감퇴는 가장 느리다. 어휘는 일상생활에서 늘 사용하기 때문에 감퇴속도가 느린 편이다.<sup>39</sup>

손다이크의 이론에 따르면 45세까지는 학습능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지만 45세가 지나면서 학습능력은 크게 저하된다. 그래서 노인이 되었을 때 지능수준은 15,16세 손자와 비슷하게 되고 80세가 되면 급격히 떨어진다. 그러나 노년기가 청년기가 중년기보다 모든 부분에서 열등한 것은 아니다.<sup>40</sup> 비록 육체적인 쇠퇴와 함께 지적인 기능도 감퇴되지만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오래 동안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 노년시기 - 정서적인 특징

이 시기는 일반적으로 노년기의 정서생활이 미약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년기의 건조한 생활은 정력의 감퇴, 체력의 감퇴, 성욕의 감퇴 등에서 오는 것이다. 노인의 생활양식도 정열적인 활동이나 긴장감이 없이 외곶으로 축소되고 한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정서생활에서는 젊은 세대보다 강도가 약하지만 저항에서 오는 강도는 오히려 강하며 공포, 괴로움, 실망, 분노들이 유쾌한

---

<sup>39</sup> 유안진, *인간 발달 신경*, 388-389.

<sup>40</sup> 김재은, *인간발달의 과정*, 180.

정서반응보다 더 자주 나타난다.<sup>41</sup>

또한 노년기의 성인은 새로운 환경이나 변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의 경직된 사고방식만을 고집하는데 이는 신체적, 정신적인 노화에 따른 과정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직장과 사회 생활에서의 은퇴, 자녀의 분가나 배우자의 사별, 신체적인 질병과 쇠약 등으로 인한 것이며, 불투명한 미래,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느끼는 데서 오는 것이다.<sup>42</sup>

그러나 노인의 정서를 반드시 부정적인 면으로만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오랜 세월동안 삶의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이제 삶의 마지막 단계에 다다른 데서 오는 완숙함과 성숙함에서 오는 마음의 평정은 이 시기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될 것이다.

### 성인교육의 필요성

성인교육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 이라함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성인들도 지속적으로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연장교육' 또는 '계속교육'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것이다.<sup>43</sup>

반면에 교회교육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소홀이 취급되어 왔다.

---

<sup>41</sup> 유안진, *인간 발달 신장*, 390.

<sup>42</sup> Newman, *Development Through Life*, 348.

<sup>43</sup> 강희천, *기독교교육상사*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5), 305.

그러나 교회 성인들은 교회의 중심 세력으로 볼 때 다음 세대를 책임질 지도자로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 다음 세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하는 존재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런 성인의 존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모든 교회에서도 성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회 성인교육의 중요성은 교회 성인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교회가 성인교육을 중요시 여겨야 할 이유들을 역사적, 사회적, 교회적 측면에서 찾아보고, 아울러 5가지로 필요성을 요약할 수 있다.

#### 역사적인 측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성인교육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다. 피터슨(G. A. Peterson)이 주장하기를 성인 기독교 교육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 최초의 인간을 한 쌍의 성인으로 창조하여 두신 때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사이즈모어(J. T. Sisimore)는 역사상 세 번의 분명한 성인교육 부흥기가 있었으며 그때마다 대규모의 종교적 각성과 갱신이 수반되어 일어났다고 하였다.<sup>44</sup>

첫 번째의 부흥기는 히브리인들의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때의 주요 교육자들이었던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은 “성인들의 교육에 주력했다”는 것이다. 성인들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민족적 시련 속에서도 유일하신 여호와에 대한 헌신적 신앙과 민족 공동체에 대한 선민의식을 잃지 않고

---

<sup>44</sup> 이지연, “교회 성인교육을 위한 성경공부 교재 분석에 관한 연구,” (신학석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1996), 19.

역사 속에서 생존자로 남으며 또한 찬란한 문화를 창출해 낼 수 있었고, 계속해서 그러한 전통이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 후세들에게도 가르쳐질 수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의 성인교육 부흥기는 초대교회의 활동 시기로서,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중심으로 형성된 거대한 성인교육의 흐름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혁신적인 영적 부흥과 각성을 일으키게 하였다.

세 번째의 성인교육 부흥은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도래하게 되는데, 종교개혁은 만인제사장 사상을 토대로 하여 성직자 이외의 일반 성인들에 대한 교육도 강조함으로써 성인교육을 중세기의 오랜 암흑기에서부터 건져내어 그 이전처럼 다시한번 중요한 제 위치에 올려놓게 되었다.<sup>45</sup>

이상의 간략한 역사적 교훈에서 성인교육이란 기독교의 오랜 전통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것이 제 위치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발휘했을 때 사회 전반에 걸친 갱신과 개혁을 자극하고 주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성인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 사회적 측면

오늘날의 사회적 상황을 볼 때 교회가 성인교육에 대하여 지니는 교육적 사명은 더욱 크게 부각된다. 우선 급속도로 발전해 온 의학기술과 경제력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계속 연장해 놓음으로써 성인들의 절대적 숫자를 크게 증가시켰다. 급증하는 성인의 숫자는 결과적으로 교회가 사역해야 할 성인들의 숫자를 많이 하며 교회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만 하는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제반 분야에서 핵무기와 생태계의 오염,

---

<sup>45</sup> Ibid.

식량문제, 군사적 분쟁, 낙태, 범죄와 퇴폐문화 등의 현대 사회가 지니고 있는 문제들은 가히 인류 문명의 존립 자체마저 위협할 만한 위험 수위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sup>46</sup>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세대에서 해결해야 하며 이는 곧 사회의 모든 분야를 이끌어 가는 성인들의 책임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언자적 통찰력과 정의구현의 의지를 가지고 희생적 사랑으로 일하는 성인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회의 성인교육이 매우 중요하며 필요한 것이다. 교회는 사회 속에 존재하며 또한 하나의 사회적 집단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여러 요소에 영향을 받게 되어있다. 그리고 분명 사회적 필요에 효과적으로 부응하며 사회를 인도하는 사역을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 교회적인 측면

교회적인 차원에서 성인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다. 우선 소극적으로는,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방지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성인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여러 가지로 겪고 있는 불화와 분쟁은 거의 모두 성인 구성원들이 야기 시키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교회가 그 성인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을 올바로 실시하지 못한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으며, 역시 그 방지책이나 해결책도 올바른 성인교육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적극적인 면에서 볼 때, 교회는 그 본연의 사명 감당과 성장 부흥을 도모하려면 성인교육에 반드시 의존하여야 한다. 교회는 그 본질상 반드시 수행해야

---

<sup>46</sup> Ibid., 21.

할 일들이 있다. 그러한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이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영향을 미치며 변화를 초래하고 참다운 구원의 안내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숙하고 성장해야 하며 부흥 발전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인교육은 확실히 필요한 것이다. 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지체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교육받음으로 인해 반드시 교육의 결과를 얻게 됨으로 인해서 좋은 인격을 갖게 되어 교회 공동체 안에 상당한 긍정적인 지체로 활동을 하게 된다.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회교육에 있어서 성인에 대한 교육사역이 중요하며 필요하다는 사실은 매우 자명한 일이다.

### 교회 성인교육의 성서적 근거

교회 성인교육은 성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본 장에서는 성인교육의 기초가 되는 성서적 근거를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 아담과 하와

구약 성서에서는 성인교육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간접적으로 성인교육을 언급하고 있다. 구약성서의 본문 곳곳에서는 성인교육을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잠언 등 지혜문학은 성인교육의 훌륭한 교제가 되고 있다. 성인 교육은 에덴동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직접 가르치셨다.<sup>47</sup>

이런 독특한 교육은 웨마로 이어진다. 웨마는 히브리인의 교육의 중심으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언급되어 있다.

---

<sup>47</sup> G. A. Peterson, *성인 기독교교육*, 이정효 역 (서울: 마라나타, 1988), 9-10.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부모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이것은 자녀를 가르쳐야 하는 부모가 먼저 마음속 깊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함을 말한다. 이 웨마 교육은 절기 교육으로 이어진다. 이 종교적 절기와 의식은 주로 가정에서 행해졌다. 자녀들은 이 절기의 의미를 부모에서 질문하고 부모들은 그 절기의 신앙적 의미를 자녀에게 설명하는 중에 자녀들도 새로운 진리를 배우게 되었다.<sup>48</sup>

이렇게 가정을 중심으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교육은 좀 더 발전하여 회당 및 사회 교육으로 연결되었다. 회당은 제사장들이 토라 중심의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의 장이었고, 사회는 장로들이 사회교육적 기능을 담당하여 잠언 등 지혜문학을 중심으로 신앙생활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의 장이었다. 이 때 실시된 교육의 내용은 지혜이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며, 지혜는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sup>49</sup>

구약성서에는 교사나 학습자가 성인이었음을 시사해 주는 내용이 많이 있다. 출애굽 시대 때 모세는 그의 대변자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도덕적, 의식적인 율법으로 훈련시켜야 하는 중대한 책임을 부여 받았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 지파로 분리되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더욱 조직적인 수준에서 성인들을 훈련시키는 책임을 부여 받게 되었다.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에서 각각의 지도자들을 내고, 그들로 하여금 조직적인 성인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런 지도급 인사들이 올바른 교육을

---

<sup>48</sup> 김중은, "삶과 교육의 주제로서의 지혜," *교육교회* 122 (1986년), 315.

<sup>49</sup> *Ibid.*, 316.

실시하지 않았을 때 그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성인교육의 중심은 회당으로 옮겨지게 되었다.<sup>50</sup>

### 예수님

구약 성서에서 뿐만 아니라 신약 성서 속에서도 여러 곳에서 성인교육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 랍비들이 토라를 가르치거나 제사장들이 지혜 문학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가르쳤듯이 신약에서도 성인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되었다. 신약성경은 특히 교육에 대한 임무를 크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 예는 예수의 지상명령과 바울 서신에서 나타난다.

예수는 그의 최후의 설교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sup>51</sup>고 함으로써 가르침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또 바울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착념하라’<sup>52</sup>고 함으로써 역시 가르침의 임무를 강조하고 있다.

예수님의 교육 사상적 핵심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의 나라란 ‘하나님의 나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성인 교육자로서의 모범을 보여 주셨다.<sup>53</sup>

<sup>50</sup> 오인탁 외 12인, *기독교교육론*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84), 28.

<sup>51</sup> 마태복음 28:20 a.

<sup>52</sup> 디모데전서 4장 13절.

<sup>53</sup> 맹용길 편, “교회교육의 신학적기초,” *성숙한 교회와 교육선교*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육부, 1984), 14.

예수님은 성서와 율법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 12제자들을 선택하여 불렀고, 또 많은 성인들에게 집단적으로 말씀을 가르쳤다. 우선적으로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성인 교육을 실시하셨다. 예수님은 교육은 제자 교육으로서 전인격적 교육이며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교육이었다. (마4:19, 19:21, 막1:17, 눅11:5). 예수님의 교육은 이론 교육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몸소 실천함으로 본을 보이셨다. 그러므로 제자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셨다. 제자들에게 뿐 아니라 예수님이 만나셨던 많은 사람들(예를 들면 세리 마태, 삭개오, 수가성의 여인 등)에게도 변화된 삶을 살도록 가르치셨다.<sup>54</sup>

예수님의 방법처럼 교육을 위한 제자들을 선택하였다. 자신을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산 교육을 실행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한 그들의 삶의 자세의 변화를 요구하신 교육이었다. 특징적인 것은 학식과 지식이 있는 대상만을 골라서 교육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교육하는 세대와 계층의 상관없이 교육의 대상이었다. 예수님의 교육방침은 삶의 중심에 '변화'를 중심으로 교육하셨다.

## 바울

바울이 가르쳤던 내용들의 교육 사상적 핵심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집약된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

<sup>54</sup> 오인택 외 12인, *기독교교육론*, 129.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바울은 부름 받은 공동체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머리와 몸으로 비유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즉 신앙공동체의 유기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귀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였다.<sup>55</sup>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동체를 염두 해 두고 당시 분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던 고린도 교회의 성인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교인들로 하여금 성숙한 몸의 지체가 되도록 가르쳤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복종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참 교회이며,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상속자라고 한결 같이 말하고 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상속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sup>56</sup>

이상에서 살펴본 구약과 신약의 성서적 근거는 오늘날 교회 성인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성인들이 교육받아야 할 당위성을 제시하여 준다. 구약과 신약에서 성인들을 가르쳤던 내용이나 교육의 장, 교육의 방법은 오늘날의 성인들을 교육함에 있어서도 상황에 맞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선 구약과 신약 모든 곳에서 교육으로 인해 모든 것을 이뤄가셨다. 한사람 한사람 그 시대와 역사 속에서 세우시고, 교육하시면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이다. 교육의 장이 열려있는 시대에 교육을 통한 인격의 변화와 인간 존엄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그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

<sup>55</sup> Ibid., 307.

<sup>56</sup> John Bright, *The Kingdom of God*, 김철손 역, *하나님의 나라* (서울: 컨콜디아사, 1973), 282.

## 제 III 장

### 예배 학교의 이론 정리

#### 예배의 본질

예배란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뚜렷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깊이 있는 만남의 역사가 시작되는 현장이다. 그렇기에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와 응답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장 실감나게 일어나는 현장이라 말할 수 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구속 사건과 부활 사건 속에서 보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확실하게 나타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영광, 찬송과 응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를 예배를 통해 깨닫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반드시 찾으시고 계신다. 정장복 교수는 예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앞에 뜨겁게 응답하는 대화의 현장이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수많은 하나님의 은총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봉헌하려는 응답적인 행위이다”<sup>1</sup>

---

<sup>1</sup>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1999), 12.

그러므로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통하여 인격적인 만남이요 교통하는 현장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시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sup>2</sup>

예배는 먼저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머리를 숙이는 행위는 존경과 순복의 표시이다. 시편 기자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시 95:6~7). 다음으로 예배는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예배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다. 예배자의 지성, 감성, 영성, 소유 등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가지고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이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시편기자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해야 한다고 하였다(시편 28:2).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하나님과 예배자의 거룩한 만남인 동시에 공간적인 만남이다.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이 만나는 현장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인간이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을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

---

<sup>2</sup> 주승중, "21세기 예배갱신을 위한 방향과 과제," *현대사회와 예배 설교사역: 정장복 회갑기념논문집*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2), 472.

앞에 나아가 예배 하는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와 은총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응답하고 봉사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 되는 것이다.<sup>3</sup>

그러므로 예배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예배가 아닌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사림이 있고, 감격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경험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런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영적 잔치로서의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매 주일 드리는 공적예배는 말할것도 없고, 삶의 예배 속에서 우리는 늘 체험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고 살아가야만이 세상에서 늘 긴장과 기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예배 속에서 확신 할 때 세상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리더할 수 있으며,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것이다.

#### 예배공동체

예배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진정 신앙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 사회성을 가진 인간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즉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 공동체 안에서 습득하는 사회성과 공동체의식을 통하여 예배안에서 더욱 깊이 있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구약시대의 예배 공동체와 신약시대의 공동체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sup>3</sup> Ibid.

### 구약시대의 예배 공동체 - 구약시대의 예배

구약은 창조부터 아브라함의 부르심, 그 후손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다. 이 구약은 신약의 모체이며 구약 없이 신약의 말씀을 이해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기도 한다. 이 구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계약의 성립이다. 구약에서부터 준비해 온 구원의 완성을 이룩한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신약이다. 특별히 예배와 내용과 그 발전을 이해하려 할 때에는 성서를 떠나서는 그 연구가 불가능하다.<sup>4</sup>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연결시켜 주는 기초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신앙의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 만남을 연결시켜 주는 은혜의 고리가 되는 역할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시면서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낸 후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9출 3:12).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대어나 가나안 땅에서 살던 시대어나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시대어나 이스라엘로 귀환한 시대어나 이방인들의 우상 풍습과 우상 문화를 버림으로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가지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변화 받고, 세움 받는 것이었다. 필자는 여기에서 구약 시대의 족장 시대 예배, 율법 시대 예배, 포로 이후의 시대 예배를 살펴보고자 한다.

---

<sup>4</sup> 정장복, *예배학 개론*, 33.

### 족장시대

이 시대는 유대교의 가장 원시적인 시기로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부터 모세가 부름 받기 전 까지를 가리킨다. 이 시기의 예배는 자연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에덴동산에서 살던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창조주를 경외하였으나 죄를 짓고 탈선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다. 이는 아담의 타락 기록에서 너무나 생생하게 대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제단을 쌓은 일과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의 심성을 따라 응답하셨다는 기록(창 4:3)을 읽을 수 있다. 이것은 피조물들의 본능적인 예배 행위라고 하기보다는 아담 때부터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계승했던 행위로 볼 수 있다. 그 후에 에녹과 하나님과의 밀접성(창 5:24)에서 예배의 계속성이 다시 한번 이어진다. 그리고 노아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대로 섬기고 순종한 뒤 스스로 제단을 쌓는 과정(창 8:20)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가 원시 이방인 예배와 다른 점은 하나님 한 분 만을 섬기는 유일신 사상의 예배였고, 제단을 쌓아 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인격적인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다.<sup>5</sup>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발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불림을 받을 때부터 분명하게 나타내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족장으로 시작하면서 제사장과 예언자와 왕으로서 제사를 집행하였다 그는 다니는 곳 마다 제단을 마음속에 간직하고서 필요성을 느낄 때 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았다.<sup>6</sup> 그의 강한 예배 신앙과 전통은 그의 후손인 이삭과

---

<sup>5</sup> Ibid., 34.

<sup>6</sup> 김소영, *예배와 생활* (서울: 기독교서회, 1982), 11.

야곱에게 계승되었다. 그의 후손들이 행한 예배는 예언적이며 제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들이 행한 제사적인 요소는 그들이 제단을 쌓은뒤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계속해야 할 예배의 필요성을 보여 주었다.

#### 율법시대(모세의 시대)

모세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펼친 지도자이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가서 요셉 시대 이후 약 400년간을 거의 노예 생활로 지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 이동을 성취시킨 인물이다. 그러나 예배학적인 차원에서 모세를 새로운 기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율법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전의 구체적인 내용을 계시 속에서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이다. 그가 남긴 레위기의 예전 절차는 기금껏 이방 종교로 인해 오염되었던 예배의 형태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게 해주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십계명이란 새 계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여하셨으며, 그에게 예배를 위한 성소의 내용과 규례 문제, 제사장 계열(레위지파)의 확정, 그리고 제사 제도의 제정 등을 명하셨다. 그로 인하여 애굽 노예 생활 속에서 무질서했던 이스라엘의 독특한 예배 형태를 쇄신해 가는 발전 단계가 개시되었다. 그래서 후기 예언자들은 모세를 최초의 예언자로 간주하고 있고, 예언적 기능을 가지고 예배 의식을 집행하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sup>7</sup>

이 시대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예배였으므로 대리적이고, 상징적이고, 모형적이었다. 이 시대의 예배 핵심은 하나님께서 크고

<sup>7</sup> 정장복, *예배학 개론*, 35-36.

놀라운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신앙고백이었다.<sup>8</sup>

그러므로 모세 시대의 예배는 개인과 공동체와 나라의 흥망성쇠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사는 것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 포로 이후의 시대

이 시대의 예배는 포로기에서 완전한 예배 형식을 갖추지 못한 채 임시적으로 드리고 있던 회당 예배를 새롭게 재정비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제사장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였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국가라기보다는 거룩한 공동체였으며, 이스라엘은 이 거룩한 공동체 형태를 회복하고, 지속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하였을 때에는 성전 예배의 신앙을 회복하는 운동을 진행하는 동시에 회당 예배도 계속 되었다.

포로 기간 중에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됨으로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예배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성전에서 모이는 성전 중심의 예배에서 희생 제사가 없는 회당 예배로 바뀌게 되었다.<sup>9</sup> 그들은 회당에 모여 나라 잃은 슬픔을 함께 하며 성전 예배를 대체한 회당 예배를 갖게 되었는데, 그들의 회당 예배의 강조점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었다. 이 회당 예배에서는 짐승을 제단에 바치는 의식이 점차 약화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집전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예배자들의 참여 속에 경청되어 이해를 가져오는 새로운 예배 차원으로 발전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sup>8</sup> 백동섭, *새 예배학* (서울: 도서출판복음, 1983), 45.

<sup>9</sup> 신학 교재 편찬위원회, *간추린 예배학* (서울: 세종문화사, 1978), 30.

성전의 제사 대신 그들에게는 새벽, 아침, 정오로 드리는 기도가 성행하게 되었으며, 가정도 예배드리는 성소로 바뀌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평신도들도 예배 활동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sup>10</sup>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형태로 변화된 예배는 기독교 예배의 중심 역할을 하는 특징을 가지게 되었으며 오늘날 개혁 교회가 갖는 말씀 중심의 예배의 뿌리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 회당 예배는 신약 시대에 와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교회의 부흥 및 성장 속에 새로운 기원을 이룩하는 큰 영향력을 남겼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하였을 때 성전 예배의 신앙을 회복하는 운동을 진행하면서 회당 예배도 계속 되었다. 말씀 중심의 예배로 바뀐 근본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을 제대로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 신약시대의 예배 공동체

신약시대의 예배는 성전 예배와 회당 예배가 함께 병행하는 시대였다. 예수님께서서는 성전 예배와 회당 예배 모두를 존중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유대인들과 달리 전통이나 장소나 형식에 얽매이기보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마음 자세를 중요하게 여기셨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나누신 대화 내용이 나온다. 그 대화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

<sup>10</sup> 정장복, *예배학 개론*, 39.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 4:22~24)

참 예배의 정신은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마음가짐이 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는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예배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유월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유월절 만찬은 기독교 예배의 참 출발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떡과 잔은 당시에 성전 예배에서 행해지던 희생 제물을 나타내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당시에 회당에서 행해지던 말씀 강론을 나타내었다.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통해 희생 제물이 있는 성전 예배와 말씀 강론이 있는 회당 예배를 하나로 만드셨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 예전과 성찬 예전을 신약시대의 예배의 두 기둥으로 삼았다. 필자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배, 사도들의 사역과 예배를 살펴보고자 한다.

#### 예수님의 사역과 예배

신약 시대의 예배를 이해하기 위해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관심을 눈여겨본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에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떤 형식적인 제도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진실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각성과 회개와 실천을 선포하셨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함을 강조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에 오셔서 예배 하는데 있어 심령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회개 운동을 펼치셨다.(요 2:21-25).

여기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예수는 예배의 단절자가 아니라 완성자라는 사실이다. 그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주제였던 하나님을 사랑하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요약된 계명으로 예배 중심의 종교성과 실천 중심의 윤리성을 계속 가르치셨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에 의하여 새롭게 제정된 성례전이다. 이 의식은 기독교 예배의 이천 년 역사에 변함없는 예전이 되었고 예배의 구심점으로서 지금까지 지켜 오고 있다.<sup>11</sup>

예배의 중심에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목적을 두시고 늘 말씀하셨다. 외식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신 강력한 메시지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길 원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정성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중심어린 예배를 드리길 원하신 것이다. 이는 곧 이웃과 함께 공통된 마음을 가지며 사랑으로 하나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르기 원하신 것이다.

#### 사도들의 사역과 예배

사도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그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배 속에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였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교회예배를 시작하였다. 그들의 예배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다음 두 가지를 통해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옛 사도들의 예배와 활동이 눈에 띈다. 그들은

---

<sup>11</sup> Ibid., 41.

예수님의 승천 이후 바로 성전으로 발길을 옮겨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 행위를 계속했다(눅 24:53). 그뿐만 아니라 오순절 사건 이후에도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와 기도를 하면서 성전을 교회 활동의 근거지로 삼았다.(행 2:46-47, 3:1, 5:42). 다음으로 사도들의 회당 중심의 예배와 활동이 뚜렷하게 발견된다. 이 회당은 예수님께서도 정기적으로 찾아가 예배를 드렸고(막 1:21-28, 3:1-6),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도 전도와 예배의 처소로 계속 사용하였다. 예수를 전할 때마다 이 회당 예배를 중심으로 하여 유대인들과의 접촉을 시도하였다.(행 14:1, 17:1, 10, 17) 사도들의 예배 활동이 유대교의 핍박 속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예배 예전의 정립이 무척 어려웠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당시의 예배 성경은 구속주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 행위로서의 예배보다는 복음 전파의 과정에서 병행되는 비예전적(informal liturgy) 형태를 지속해 가고 있었다. <sup>12</sup> 윌리엄 맥스웰(William d. maxwell)은 당시의 예배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초대 교인들은 한 동안 회당에서 성전 예배를 참석하였다. 그들은 모임을 자주 가지면서 애찬이라 불리는 공동식사를 하였다. 그들은 이 식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부탁하셨던 성만을 가졌다. 이 예전이 끝날 시간에는 예언이나 방언을 비롯한 특별한 은사를 나타내었는데, 조심스럽게 그것을 행하였다. 그러나 2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애찬식 모임과 은사 교환은 기독교 예배의 중심점 밖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당시의 사도들의 예배를 살펴보면 첫 번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예배자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였다. 예배자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였다(엡 5:19). 그래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침으로

---

<sup>12</sup> Ibid., 41-42.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도들의 예배를 느낄 수 있다. 둘째는 구약의 율법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읽거나 그 의미를 강론하거나 해석하면서 믿음과 행함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며, 그 의미를 파악하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이들을 통해 삶의 변화를 이뤄 사랑을 실천하는 현실이 되도록 하였다. 셋째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중심으로 영광, 감사, 회개, 고백, 간구, 중보기도, 축도, 재림 등을 놓고 기도하였고, 아멘으로 화답하였다. 예배의 중요 요소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속에서 결단에 의미와 가깝다. 결단하고, 서원함으로 삶의 지경이 넓어짐으로 더욱 영향을 미치도록 결단하는 기도를 요구한 것이다. 넷째는 준비해온 예물을 봉헌하여 감사와 헌신의 표시하였고, 주님께 봉헌한 예물은 가난한 이웃, 가난한 과부, 가난한 고아를 돌보는데 사용하였다. 물질관에 늘 흔들리는 인간들에게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늘 훈련과 반응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다섯째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예배할 때 죄의 자복과 신앙을 고백을 하였고, 죄 사함을 바라는 기도를 하였다. 여섯째는 예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만찬과 세례식을 배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에 감사하면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결단과 고백을 하였다. 그들은 예배를 통해 성령의 능력과 영적 경험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순종을 하였고, 복음 전파에 전심전력을 다하였다.

이상으로 살펴 본 바와 같이 당시 사도들의 예배는 회당 예배라는 절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로마의 핍박을 받아 지하 속에 들어가서 비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사도들은

예배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 이런 예배를 통해 성도들의 신앙 결속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려고 하였다. 사도들은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배하는 공동체와 복음의 증인되는 공동체를 세우려고 온갖 희생을 감수하였다. 오늘날 정체와 침체의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예배 공동체를 세워 예배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했던 사도들의 예배를 통해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로 만들고자 했던 사도들의 예배 정신이 우리 교회 신앙 회복에 큰 도전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 예배 교육의 이해

오늘날의 예배 상황을 가리켜 학자들은 예배전쟁(Worship War)이라고 말한다. 이 말은 다양한 예배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다는 뜻이다. 현재 한국교회에는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 이머징 예배, 전통 예배 등의 다양한 예배들이 등장하고 있다. 예배자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을 하고, 새롭게 변화하고, 성장해 나가는 의미를 가지고, 신앙공동체의 신앙을 배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들은 다양한 예배들 속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sup>13</sup> 그렇다면 예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는가?

일반적으로 예배란 신을 신앙하고 숭배하는 사람이 그 대상을 경배하는 행위 및 제반양식이다. 이 예배는 적어도 신이 존재하며, 신과 인간 사이에 어떤 교류나 가능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신과 인간 사이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

<sup>13</sup> 임영택, 나형석 공저, *예배와 교육* (서울: 종로서적 성서출판, 2000), 16.

일반적인 종교가 지향하는 예배 혹은 제사의 목적이 된다.<sup>14</sup>

그러나 기독교 예배는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중심적인 활동이 되고, 기독교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원동력이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이 지향해야 하는 목표가 되고, 최종적인 집결자가 되고, 교회의 모든 사역과 삶이 예배를 위해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예배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고, 가장 큰 사명이자 특권이 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큰 책무가 있다면 예배이다.<sup>15</sup>

예배는 하나님께서 역사 하신 것, 일 하고 계신 것, 앞으로 이루시기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인간의 즐거운 응답이다. 그러므로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인정하며, 감사, 숭모(adoration)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념하고 재현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고 알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행위에 대하여 날마다 감사하고 그 구원 행위에 날마다 감격하고, 그 구원 행위를 날마다 선포하여야 한다.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재현함으로써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책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sup>16</sup> 예배를 통해 진정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과 은혜를 선포하며 그에 따른 삶을

위의 내용에서 살펴 본 것을 토대로 예배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sup>14</sup> Robert E. Webber, *Blended Worship: Achieving Substance And Relevance In Worship*, 김세광 역, *예배가 보인다 감동을 누리다* (서울: 예영, 2004), 31.

<sup>15</sup> 김운용, "예배 부흥과 개혁: 우리 시대에도 예배는 영광스러워야 한다," *교회 십자가 목회: 교훈목사 안산제일교회 성역 30주년 기념 논문집*, (서울: WPA, 2008), 349.

<sup>16</sup> 총회국내선교부 예배학교 편,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2), 15.

첫째는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교제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사역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sup>17</sup>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을 공급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얻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의 은혜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다.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송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는 예배란 하나님과 예배자 간의 일방적인 영적 대화가 아닌 쌍방향인 영적 대화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예배자의 응답과 고백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한다. (잠 8:17). 그리고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영적대화를 함으로서 예배자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정직하게 응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값없이 구원 받고, 죄용서 받은 감격을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응답을 해야 한다.

셋째는 하나님과 예배자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봉사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봉사와 인간에 하나님께 대한 봉사로서 쌍방향의 봉사를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주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

<sup>17</sup> Robert E Webber, *Worship Old And New*, 김지찬 역, *예배학*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13.

용서와 기쁨과 소망을 주신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봉사이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헌신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봉사이다.<sup>18</sup> 맥아더(John MacArthur)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sup>19</sup> “예배는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하여 합당하게 반응하는 인간의 모든 것이며, 최상의 존재에게 존경과 경의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고 우리는 그 감사 속에서 경배하는 접촉점이 일어나는 것이다.

넷째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치가 되어야 한다.<sup>20</sup> 우리는 예배자로서 예배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함으로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을 충만하게 받은 경험을 해야 한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면서 전에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고, 지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응답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축하 잔치로서 회복해야 한다.<sup>21</sup>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이뤄져야 한다. 찬양과 경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큰 소망과 희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는 그 감격과 은혜를 공급받아야 한다.

---

<sup>18</sup> 이명희, *현대 예배론* (서울: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2011), 37.

<sup>19</sup> John MacArthur, *True Worship*, 한화룡 역, *참된예배* (서울: 두란노, 1986), 7.

<sup>20</sup> Robert E. Webber, *Worship Is Verb*, 황인걸 역, *살아있는 예배를 위한 8가지 원리* (서울: 예본, 1999), 46.

<sup>21</sup> 이명희, *현대 예배론*, 38.

다섯째는 예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경험적이고 실제적인 예배가 되어야 한다. 워어스비(Warren Wiersbe)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예배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한 인간의 모든 것으로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는 예배자의 응답이다. 이 응답은 주관적인 경험 안에서 신비로운 면을 포함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에 대한 객관적인 순종으로 편현되는 실천적인 면도 포함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균형 잡힌 사랑의 응답이다. 예배자가 하나님을 알아 가면 알아 갈 수 록 점점 깊어지는 응답이다.”<sup>22</sup>

예배의 실제적 체험은 예배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체험한다. 그리고 하나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 감동을 누린다. 이런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영광을 돌린다.

예배에 대한 위 다섯 가지를 잘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 지고, 영적 회복과 성장을 이루어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기초를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 경배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신다. 그로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이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 많은 문제들이 야기가 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써 하나님을 더욱 예배 속에서 깊이 만나고, 체험해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예배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깨어 근신하며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산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

<sup>22</sup> Warren W. Wiersbe, *Worship* (Nashville: Oliver-Nelson Books, 1986), 27.

세대에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 예배 교육의 필요성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예배 교육은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 사역은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그래서 예배를 교회의 다른 사역에 부가된 보조적 조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배는 교회의 생활과 선교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예배는 교회의 모든 생활이 지향해 나아가는 정상이자 모든 사역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 예배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이다. 예배는 교회의 가르침을 확인해 주고, 세계를 향한 복음적 선교 사명을 불러일으키고,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도록 격려한다.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 지체의 지체로서 참된 교제를 실현하고, 예배자들은 실제적인 치유를 경험한다.<sup>23</sup>

예배자들은 왜 예배가 중요성을 알면서도 실패하는가? 가장 큰 이유를 든다면 예배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이다. 이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교회는 예배 회복을 통한 신앙 활성화를 위해 항상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배자들은 무엇이 잘못된 예배인지, 무엇이 바른 예배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 잘못된 예배 모습

먼저 잘못된 예배를 살펴보면 첫째는 예배의 참 대상이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위한 예배이다. 예배는 예배 이외의 다른 목적을 가질 수 없고, 예배 이외의

---

<sup>23</sup> Webber, *Blended Worship*, 31.

다른 목적을 수단으로 삼는 것은 우상숭배이다. 그러므로 그런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므로 분명히 잘못된 예배이다. 예배는 예배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예배하는 예배자가 받는 복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이다.

예배는 어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어떤 사람의 업적이나 공로를 높이는 것은 바르지 않다.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욕구나 욕망을 채워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예배는 인간에 관한 것도 아니고, 인간을 위한 것도 아니므로 오직 하나님에 관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sup>24</sup>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의 중심에서 성도는 예배해야 한다.

참된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므로 하나님만 영광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그러므로 예배는 예배의 주체가 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므로 사람을 위한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만 위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sup>25</sup>

둘째는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예배이다. 예배는 하나님과 예배자 간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예배를 결코 무당의 푸닥거리처럼 생각하거나 점을 치는 주술적인 예배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공로 쌓기 식으로 변질시켜도 안 된다. 예배가 주술적인 분위기가 되면 필요 없는 말, 저속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쉽고, 예배자들로부터 아멘을 유도하는 말을 하게 되고, 기복적인 내용을 설교와 기도에 사용하게 된다. 기복적인 신앙인들로 인하여 세상적인 기독교가 상당한 많은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비추어지는 경향이 있다. 예배는 절대로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고자하는 의식으로 드러서는 안된다. 철저하게

---

<sup>24</sup> John Randall Dennis, *Lining Worship: A Biblica Guide To Making Worship Real In Your Life*, 송상현 역, *사카, 살아있는 예배* (서울: 토기장이, 2004), 52-53.

<sup>25</sup> 양정식, *성실한 마음, 공교한 손* (서울: 예술, 2011), 36.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기쁨의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예배의 정신이 사라져버린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예배이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예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sup>26</sup>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사야 시대처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일들이 비밀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아무 목적과 뜻 없이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과 영적 무감각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예배를 일주일에 한번 거쳐야 하는 과정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인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예배가 될 뿐이다. 영이 없는 의식은 죽은 것처럼 의식이 없는 영은 삶의 현장과 무관하기 때문이다.<sup>27</sup>

넷째는 사람들의 육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오락적인 예배이다. 예배는 예배자들에게 마음에 즐거움을 주거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만족시켜 주기 위한

<sup>26</sup> 이사야 1장 11-14절.

<sup>27</sup> 정장복, *예배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9), 20.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오락을 제공해 주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다.<sup>28</sup>

예배의 오락화는 무서운 것은 예배자로 하여금 재미와 흥미를 추구하게 하고, 설교자로 하여금 웃기는 설교를 좋은 설교라고 착각하게 한다. 그리고 저속한 유머어로 사람들을 웃기게 만들어 사람들의 시선을 끌도록 유혹하고 사람들의 육적인 욕구를 채워주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예배는 오락이 아니다. 하나님과 예배자의 경건한 만남이 되고, 거룩한 만남이 되고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야지 오락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는 있지만 예배가 오락화 되는 것은 예배를 타락시키는 독소가 된다. 때론 사운드와 분위기에 많은 감정을 쏟기에 찬양예배라는 예배 속에서 음악성향을 너무 크게 키운다든지, 조명효과에 너무도 치중하는 경향이 요즘 현대 교회에서 많이 보인다. 이는 결코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인간적인 충족을 위한 방식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화려한 조명보다 시끄러운 음악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유념해야 한다.

다섯째는 체면 때문에 예배하는 의무적인 예배이다. 예배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런데 예배를 마지못해 의무적으로 예배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목 때문에 예배하거나 자기체면 때문에 예배하거나 예배 안하면 벌 받을 것 같아 예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의무감으로 사로잡혀 예배하는 것은 바른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을 기만하고 만홀히 여기는 예배가 된다.

하나님께서서는 의무적인 예배가 아닌 자원하는 예배를 원하신다. 우리는

---

<sup>28</sup> John M, Frame, *Worship In Spirit And Truth*, 김광열 역,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0), 34.

하나님을 기만하는 의무적인 예배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 바른 예배 모습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려면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 바른 예배를 살펴보면 첫째는 구원의 기쁨으로 풍성한 예배이다.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배할 수 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불신자가 예배할 수 없다. 불신자는 예배에 참석할 수 있으나 예배에 참여할 수는 없다. 물론 교회는 불신자들이 구도자 예배라는 예배를 통해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구도자 예배는 엄밀히 말하자면 예배 사역 보다는 전도 사역에 더 가깝다.<sup>29</sup>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통해 아무 값없이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 구원의 기쁨을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의 기쁨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참으로 구원의 은총의 사건이기에 가장 중요한 감동은 기쁨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한 첫

---

<sup>29</sup> 이명희, *현대예배론*, 58.

단추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감격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예배이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 칠일에 안식하신 날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안식일로 정하시고, 예배하는 날로 삼으셨다. 엿새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일하다가 제 칠일에 모든 일을 멈추고 안식일을 지켜야 했다.<sup>30</sup> 이사야 58장 13-14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밭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와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와 입을 말씀이나라.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 이는 곳 기독교의 중심인 것이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승리의 찬양을 하도록 우리를 구원백성 삼아주시는 감격을 가슴에 품고 예배하는 것이다.

안식일이 율법시대의 상징이라면 주일은 은혜시대의 상징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신앙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여기에서 주일은 안식 후 첫날을 말한다.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 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주일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는 죽으신 예수님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되어야 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일 예배마다

---

<sup>30</sup> Ibid., 60.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경험하는 감격을 맞볼 수 있어야 한다.

셋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찬양하는 예배이다.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행위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들을 인정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멈추고 전심전력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존경하고, 찬양하는 일이 된다.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일이 된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 자녀들도 동일하게 소유하도록 늘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찬양의 궁극적 대상이시며 예배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성도들을 부르셨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배할 때 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한다.<sup>31</sup> 시편 150편을 보면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찬양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해야 한다.

---

<sup>31</sup> Franklin M. Segler, *Christian Worship*, 정진황 역, *예배학원론* (서울: 요단출판사, 1979), 21.

넷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슴으로 신앙고백하는 예배이다. 신앙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가슴 속에서 우리나라오는 믿음의 참 고백이다. 이 고백은 순수하고 진신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인정과 순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신앙고백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가슴 속에서 아무 꾸밈없이 순수하게 우리나라와야 한다. 조금도 포장하면 안된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인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내 모든 것을 다하여 다시 말해서 지성과 감정과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더 나아가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과 혀로만 아니라 향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신앙고백을 해야 한다.

#### 예배 교육의 원리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큰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힘과 능력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통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신다. 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신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신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은 예배를 통해 이루어진다. 예배 없이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예배는 인생 전부가 되기 때문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추구해야할 예배교육의 원리 중심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의 원리를 추구해야 한다.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라 인간들의 형식 및 의식에

불과하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많은 양과 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겼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며, 여호와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성전을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예배가 되고 만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미리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분의 존전에 나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한다. 그럴때 이성의 많은 잡다한 생각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역대하 6장 20 - 21절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 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 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이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둘째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의 원리를 추구해야 한다. 우리가 예배하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현장이다. 이 은혜의 현장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참 해방과 참 평안과 참 치유를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 빈들에서 5,000명이 배고파 할 때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떡 다섯 개와 물고기를 배불리 먹는 표적이 나타났다. 우리가 예배하는 현장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치유와 회복과 사죄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역사가 예배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나타난다.

셋째는 생활과 연결된 예배의 원리를 추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예배가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하더라도 우리의 생활과 연결되지 않는 예배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생활과 연결된 예배를 원하신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했다. 참 예배는 우리의 생활과 절대로 떨어 질 수 없다. 예배와 생활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하며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생활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예배의 원리를 추구함으로써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참 예배자가 되어 빛과 소금이 되는 생활을 해야 한다. 그리고 참 구원과 생명 되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 주는 그리스도의 거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가정과 직장까지 끌고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 한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와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에게 베풀 수 있어야 한다. 예배는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뤄져야한다. 어쩔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함께 하시는 성령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넷째는 예배자들 모두가 함께 드리는 능동적인 예배의 원리를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와 예배를 드릴 때 보는 자가 되지 말고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강제적인 예배가 아닌 자발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 한국 교회에서는 목사는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은 예배를 구경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예배자들은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에 가는 존재도는 설교를 들어 보는 존재로 전락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sup>32</sup>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지 못함으로써 예배의 본질이 빠져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sup>33</sup> 그러므로 이런 예배 상황을 우리는 탈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몸의 지체임을 확인하고 경축하는 공동체 의식인 모든 예배 요소에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성을 나타내야 한다.<sup>34</sup> 우리는 예배 안에서 신앙공동체의 풍부하고, 충만하고, 의미심장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함께 능동적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sup>35</sup>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예배에 참여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원하신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능력 받고, 함께 고백하고 응답 받는 것을 원하신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였던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예수

---

<sup>32</sup> 주승중, "한국교회의 예배, 설교의 위기," *교회와 신학* 50 (2002년), 18.

<sup>33</sup> Sally Morgenthaler, *Worship Evangelism*, 임하나 역, *이것이 예배이다* (서울: 하늘사다리, 1998), 27.

<sup>34</sup> 김세광, *예배와 현대문학*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05), 229.

<sup>35</sup> 박은규, *21세기 예배*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04), 107.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는 함께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는 예배 공동체 한 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또한 서로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선한 이에 함께 동역하는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기본 자세요, 정신인 것이다.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가르침 받기를, 즉 배우기를 힘쓰는 예배교육의 현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미쁘신 그 사랑이 믿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였고, 서로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드리도록 해야 한다.

## 제 IV 장

### 프로젝트의 계획과 실행

#### 프로젝트 설명

본 4장에서는 실제적으로 남양주 은성교회 중직자들인 성가대원(40명) 청년(20명)을 대상으로 하여 6주간 소예배실에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세미나 운영의 주제를 ‘예배 학교’ 라 하여 은누리 예배사역본부에서 협력하였고, 강사로 은누리 교회 예배 본부장으로 사역하는 김영진 목사를 초청하였다. 이번 프로젝트는 논문의 핵심사역이라 말할 수 있다.

은성교회는 경기도 남양주 오남읍 양지리에 소재한 교회로 시골분들이 개척을 하여 점차 자리를 잡았고, 필자가 사역할 당시 60주년 기념식을 하는 역사는 있지만 과거 교인과 목회자와의 관계가 깨어져서 분립이 된 상태에서 다시 새롭게 건축하고, 세워진 아픔이 있는 교회이다. 그런 상황에서 새롭게 부임한 목사님의 열정적인 말씀 사역과 일대일 양육 시스템으로 특별한 사역프로그램 없이 10여년 사역을 해오던 교회였다. 그런 분위기였기에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이 지나온 교회가 년 수가 더해갈수록 분위기가 쇠신되었고, 그에 따른 인근 아파트 들이 급속히 건축이 되어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이 되었고, 서울과의 거리가 40~50분 거리였기에 은퇴 후 이분들이 시골의 공기와 여가를 즐기러 오셔서 교회에 등록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담임목사님의 말씀을 뒷받침할 교육이

필요했다. 이런 분위기를 느낀 필자는 담임목사님과 상의 후 중직자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예배학교를 운영하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예배의 본질적인 교육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게 되었고, 그 계획에 앞서 상담을 해본 결과 모두들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성도들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예배학교’라는 세미나를 운영해서 이들이 교회 안에서 더욱 잘 교육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교육된 그들을 통해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고, 더욱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구상을 하게 되었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다음 장인 결과를 보면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프로젝트의 주 교재인 ‘진정한 예배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 예배학교’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에 대해 재해석과 진정한 예배자를 통한 한국교회의 바르게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다.

### 교재의 내용 및 활용방법

<예배학교>는 성도들을 위한 예배 양육 기초 교재이다. 이 교재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졌다. 일대일로도 가능하고, 소그룹과 대그룹으로도 가능하다. 우리 남양주 은성교회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1차 사용하였다. 소그룹에서 나눔을 하였고, 대그룹을 통해 서로서로 체크하며, 피드백을 해주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였다.

각 과를 시작할 때마다 시작 부분에 있는 기도문을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했다. 한 목소리로 읽게 함으로 기도할 때 서로 더 간절함과 큰 은혜를 나누게 하였다.

성경 구절을 한 목소리로 읽는다. 말씀을 통해 배우는 예배학교이기 때문에

말씀을 집중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 것이다.

말씀을 읽은 후에는 대부분 질문이 있다. 교재를 공부할 때 먼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적도록 되어있고, 그런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편찬되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적으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진솔함을 얻게 하였다.

나눔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강의를 들은 후 서로 나눔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나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도록 했다. 이를 위해 4~5명씩 소그룹을 구성하고 각 과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나눔의 질문을 활용해 나누도록 했다.

적용의 시간이 필요하다. 깨달은 부분을 생활 속에서 적용해야 한다. 삶에서 적용할 때 예배의 변화와 예배자로서의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때문이다.

다음 과를 위해 반드시 연습해 오도록 했다. 연습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는 것이 좋다.

말씀을 암송해야 한다. 각 과에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핵심이 되는 구절을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더욱 깊이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다잡는 제어가 있음으로 가정과 사회, 국가의 영향을 분명 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배 학교 기간 동안 매일매일 예배일기를 작성하도록 했다. 매일 자신의 예배의 삶을 돌아보며 기록한다.

특히 예배일기의 자세한 활용 방법은 이렇게 진행하면 된다. 예배일기는 삶의 예배를 이루기 위한 예배 훈련이다. 예배학교 기간 동안 매일 예배일기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예배의 삶을 돌아본다.

- 1) 찬양의 고백 - 오늘 내가 고백하고 싶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을 기록한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성품을 적는다.

- 혹은 떠오르는 찬양곡의 가사를 적어도 좋다.
- 2) 예배의 말씀 - 매일 <예배학교>를 통해 배운 성경 구절들을 한 구절씩 묵상한다. 페이지 마다 있는 구절을 천천히 반복해서 여러 번 읽는다. 말씀을 외우는 것도 좋다.
  - 3) 예배를 위한 묵상 - 읽은 말씀을 묵상한다. 그리고 묵상한 내용을 예배일기에 기록한다.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나 정리된 생각을 기록한다. 또 자신의 예배를 돌아보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기록한다.
  - 4) 예배를 위한 적용 - 묵상을 순종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기록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생활 속에서 순종하며 적용할 때 변화가 시작되고 또 지속된다. 예배의 삶을 위해 적용해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 5) 기도 - 자신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부족하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기록해야 한다.
  - 6) 주일용 - 주일에는 주일용 예배일기를 따로 두어 기록한다. / 찬양의 고백: 주일 예배 시간에 고백한 찬양의 내용 중에 기억에 남는 내용들을 기록한다. / 설교요약: 주일 설교 본문과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록하고 묵상하며 적용한다.

### 프로젝트의 구성

이 교재는 총 4과 그리고 부록으로 예배 일기를 쓰도록 되어있다.

먼저 1과는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육된다. 이 과 안에서는 과연 예배란 무엇인지에 대해 <예배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고, 다음으로 <예배의 목적>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이해시키고 있으며, 다음은 <예배의 원리>, <예배의 방법> 이렇게 총 4가지 소 주제를 가지고 교육한다.

2과에서는 “찬양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교육한다. 그 교육 안에 <찬양의 의미>, <찬양의 중요성>, <찬양의 방법>, <찬양의 정의> 이렇게 4가지 소주제로 교육이 진행된다.

다음으로 3과는 “예배의 순서의 의미는?” 이라는 제목으로 교육한다. 그 교육 안에서 <예배의 준비>, <예배의 순서들>, <성만찬의 의미>, <세례의 의미> 이

4가지 소주제를 교육한다. 예배의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 예배 속에서의 순서들이 갖는 의미, 교회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성만찬과 세례의 의미를 좀더 구체적으로 교육받도록 편찬되었다.

마지막으로 4과는 “예배와 삶”이라는 주제로 교육한다. 그 주제 아래 소주제로 <예배의 결과>, <새로운 성전>, <생활의 적용> 이렇게 3가지를 교육한다. 4과는 실질적인 실천사항을 교육하면서 적용하고 피드백을 얻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예배의 결과물을 얻게 하고, 생활 속에서 변화를 각자가 느끼고, 고백하도록 하는 깊이 있는 교육이 4과에서 이루어진다. 교육으로써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변화를 이뤄내도록 교육하고, 자신의 변화를 간증하도록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편찬된 부록인 예배일기는 매일매일 한달 간 진행되는 교육 안에서 숙제처럼 진행하게 하여 자기 점검표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4장에서는 ‘예배학교’ 프로젝트를 통한 실 사례를 통하여 남양주 은성교회 중직자 들인 찬양대 40명, 청년대학부 20명의 실질적인 교육을 해보았고, 그에 따른 변화와 기대를 얻게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 제 V 장

### 결과 분석

#### 결과

필자는 예배 학교 세미나를 실시하기 전부터 농촌에서 태어나 농촌생활에서 줄곧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신앙의 활력소를 불어 넣어 주고 싶었다. 또한 남양주 은성교회는 1957년 4월 14일 개척하여 올해로 60주년이 되는 교회로써 역사도 있는 교회이다. 현재 남양주 은성교회는 담임목사 김종균목사 부임 2007년부터 도약의 시점이라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전에 교회가 나뉘어졌고, 건축을 시작했으나 건축도 중단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교인들의 교회이동으로 인해 50명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현 담임목사의 말씀교육과 예배를 위한 몸부림이 지금 현 남양주 은성교회를 성장하게 된 이유이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었지만 한 주 한 주 새가족이 등록을 했고, 필자가 부임한 2009년부터 사임한 년도인 2015년 약 7년동안 새가족 등록수가 600명이상 증거하여 현재는 주일 출석수 700명에 가깝게 교회 성장을 이룬 교회가 되었다. 프로그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성장을 이룬 단 한가지 이유는 담임목사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예배를 통한 회복입니다. 오직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은성교회는 매주 오후 2시에 드리는 예배를 말씀강해로 성도들을 깨우고 있었다. 그렇다. 예배가 회복되면

성도들은 깨어 일어나는 것이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신앙관을 변화시키고, 교회 중심적인 복음사역의 총력을 기울일 수 있다고 필자는 확신한다. 이런 발전 속에서 맡고 있던 청년부와 교회 가장 열심을 내주는 성가대원들을 대상으로 예배학교를 외부강사 초청하여 세미나를 열게 되었고, 이 세미나를 통하여 예배학교를 통하여 더욱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고, 예배자다운 모습을 갖추며 이 시대에 진정한 크리스천으로써의 삶을 살도록 안내하고자 논문과 예배학교 세미나를 열어본 것이다. 예배자 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해본 결과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기존 성도들에 비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결과와 평가를 하게 되었다.

#### 예배 학교 세미나 분석(설문지)

예배학교에 대한 분석은 2015년 3월부터 5주인 4월 첫째 주까지 진행을 마친 후 4월 둘째 주에 다음과 같은 설문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내놓는다.

필자는 예배 학교에 대한 질문 내용을 총 17개로 하여 6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다. 그런데 예배 학교와 관련된 예배 분위기, 예배 환경, 예배 영향력, 예배와 설교, 예배와 기도 등을 중심으로 설문을 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사람은 남자가 20명 여자가 40명으로 여자가 남자 보다 더 많았다.

20대가 10명, 30대가 20명, 40대가 15명, 50대가 10명, 60대가 5명으로 모두 60명이 참여하였다.

&lt;표1&gt; 설문조사 참여 대상

연 령 층	참여 숫자
20대	10명
30대	20명
40대	15명
50대	10명
60대	5명
총	60명

예배에 대한 설문은 총 17개로 하였고, 응답은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는 4가지 응답을 할 수 있게 작성하였다. 그리고 17개의 문항을 도표로 만들어 예배 학교에 대한 은성교회 교인들의 예배 반응을 설명하였다.

예배 학교가 내 신앙 회복에 영향력을 주고 있다.

<표2> 예배학교의 영향력

	빈도	%	유효%	누적%
유효 아니다	2	3.3	3.3	3.3
보통이다	3	5.0	5.0	8.3
그렇다	15	25.0	25.0	33.3
매우 그렇다	40	66.7	66.7	100.0
합 계	60	100.0	100.0	

위의 항목에서는 25%가 그렇다. 66.7%가 매우 그렇다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예배 학교가 신앙 회복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예배 학교를 마친 후에도 교인들 신앙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것을 기대 할 수 있다.

예배 학교가 내 예배 생활에 유익을 주고 있다.

<표3> 예배학교를 통한 예배 생활 유익

	빈도	%	유효%	누적%
유효 아니다	2	3.3	3.3	3.3
보통이다	2	3.3	3.3	6.7
그렇다	11	18.3	18.3	25.0
매우 그렇다	45	75.0	75.0	100.0
합 계	60	100.0	100.0	

18,3%가 그렇다, 75%가 매우 그렇다 대답한 것으로 보아 예배 학교가 교인들의 예배 생활에 교인들에게 상당히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겠다.

어쨌든 예배 교육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가장 의미있는 깨달음과 목적을 줬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다.

나는 예배 학교가 바른 예배자로 세워주는 데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표4> 예배학교를 통한 예배자 유익

	빈도	%	유효%	누적%
유효 아니다	1	1.7	1.7	1.7
보통이다	4	6.7	6.7	8.3
그렇다	11	18.3	18.3	26.7
매우 그렇다	44	73.3	73.3	100.0
합 계	60	100.0	100.0	

18,3가 그렇다, 73.3%가 매우 그렇다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교인들이 예배 학교를 통한 바른 예배자가 되는데 도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나는 예배 학교를 통해 예배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표5> 예배학교를 통한 예배 중요성 인식

	빈도	%	유효%	누적%
유효 아니다	0	0.0	0.0	0.0
보통이다	2	3.3	3.3	3.3
그렇다	10	16.7	16.7	20.0
매우 그렇다	48	80.0	80.0	100.0
합 계	60	100.0	100.0	

16,7%가 그렇다, 80%가 매우 그렇다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교인들이 예배 학교를 통해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예배 학교 교육을 통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의 계기가 있을 것으로 본다.

나는 예배 학교를 통해 바른 예배자세를 가지게 되었다.

<표6> 예배학교를 통한 예배 자세

	빈도	%	유효%	누적%
유효 아니다	0	0.0	0.0	0.0
보통이다	4	6.7	6.7	6.7
그렇다	16	26.7	26.7	33.3
매우 그렇다	40	66.7	66.7	100.0
합 계	60	100.0	100.0	

26,7%가 그렇다, 66,7% 매우 그렇다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예배 학교를 통해 예배자세가 달라진 것으로 나타나 있다. 예배 시간 전에 성경과 찬송을 찾아 놓거나 조용히 기도하면서 예배에 임하는 교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나는 예배 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졌다

<표7> 예배학교를 통한 설교 경청 자세

	빈도	%	유효%	누적%
유효 아니다	3	5.0	5.0	5.0
보통이다	5	8.3	8.3	13.3
그렇다	32	53.3	53.3	66.7
매우 그렇다	20	33.3	33.3	100.0
합 계	60	100.0	100.0	

53,3%가 그렇다, 33,3%가 매우 그렇다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예배 학교를 통해 말씀 듣는 자세가 달라진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필자는 예배 학교 후에 교인들이 설교 시간에 집중하고 경청하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인들의 간절함을 볼 수 있었고, 교인들의 달라진 자세를 직접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예배 학교를 통해 성찬과 세례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였다.

<표8> 예배학교를 통한 성찬과 세례의 의미

	빈도	%	유효%	누적%
유효 아니다	2	3.3	3.3	3.3
보통이다	5	8.3	8.3	11.7
그렇다	43	71.7	71.7	83.3
매우 그렇다	10	16.7	16.7	100.0
합 계	60	100.0	100.0	

71,7%가 그렇다, 16,7%가 매우 그렇다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예배 학교를 통해 성찬과 세례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인식하게 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앞으로 성찬과 세례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례전에 참여하는 교인들의 모습이 바뀔 것을 기대해본다.

나는 예배 학교 후에 예배 분위기가 더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표9> 예배학교 후의 예배 분위기

	빈도	%	유효%	누적%
유효 아니다	3	5.0	5.0	5.0
보통이다	5	8.3	8.3	13.3
그렇다	27	45.0	45.0	58.3
매우 그렇다	25	41.7	41.7	100.0
합 계	60	100.0	100.0	

45%가 그렇다, 41,7%가 매우 그렇다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예배 학교 후에는 성교회 예배 분위기는 더욱 거룩하고, 한결 집중력도 있으며 좋아진 것으로 나타나 있다.

나는 예배 학교 후에 대표기도자의 기도 시간이 간결해졌다고 생각한다.

<표10> 예배학교 후의 대표 기도자 기도시간

	빈도	%	유효%	누적%
유효 아니다	5	8.3	8.3	8.3
보통이다	15	25.0	25.0	33.3
그렇다	25	41.7	41.7	75.0
매우 그렇다	15	25.0	25.0	100.0
합 계	60	100.0	100.0	

41,7%가 그렇다, 25%가 매우 그렇다 대답한 것으로 보아 예배 학교 후의 대표 기도자 시간이 간결해지기는 하였지만 25%가 보통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아직도 대표기도 시간에 대해 지루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교육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나는 예배 학교 후에 예배에 지각하지 않았다.

<표11> 예배학교 후의 예배 지각

	빈도	%	유효%	누적%
유효 아니다	2	3.3	3.3	3.3
보통이다	2	3.3	3.3	6.7
그렇다	31	51.7	51.7	58.3
매우 그렇다	25	41.7	41.7	100.0
합 계	60	100.0	100.0	

51,7%가 그렇다. 41,7%가 매우 그렇다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예배 학교 후에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것으로 잘 나타나 있다. 예배 시간에 대한 의식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다.

나는 예배 학교 후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다.

<표12> 예배학교후의 예배 태도

	빈도	%	유효%	누적%
유효 아니다	0	0.0	0.0	0.0
보통이다	5	8.3	8.3	8.3
그렇다	25	41.7	41.7	50.0
매우 그렇다	30	50.0	50.0	100.0
합 계	60	100.0	100.0	

41,7%가 그렇다, 50%가 매우 그렇다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예배 학교 후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싶어 하는 교인들의 간절한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나는 예비 학교 후에 예비에 대한 민감한 사람이 되고 있다.

<표13> 예비학교 후의 예비 마음

	빈도	%	유효%	누적%
유효 아니다	1	1.7	1.7	1.7
보통이다	2	3.3	3.3	5.0
그렇다	27	45.0	45.0	50.0
매우 그렇다	30	50.0	50.0	100.0
합 계	60	100.0	100.0	

45%가 그렇다, 50%가 매우 그렇다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예비 학교를 통해 예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게 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예비에 대하는 예비 태도가 달라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나는 예배 학교 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

<표14> 예배학교 후의 예배 경험

	빈도	%	유효%	누적%
유효 아니다	0	0.0	0.0	0.0
보통이다	3	5.0	5.0	5.0
그렇다	40	66.7	66.7	71.7
매우 그렇다	17	28.3	28.3	100.0
합 계	60	100.0	100.0	

66,7%가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대답하한 것으로 보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부분이 상당히 깊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는 예배 학교 후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다.

<표15> 예배학교후의 가정예배

	빈도	%	유효%	누적%
유효 아니다	28	46.7	46.7	46.7
그렇다	32	53.3	53.3	100.0
합 계	60	100.0	100.0	

46,7%가 아니다, 53,3%가 아니라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교인들 대부분이 가정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자는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주일 성전 생활의 예배는 체크가 되고, 점점이 되지만 가정으로 돌아가서 예배를 가정에서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필자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의식변화를 준다면 가정예배가 모두 가능할 것이라 기대해 본다.

나는 예배 학교 후에 매일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하고 있다.

<표16> 예배학교후의 기도시간

	빈도	%	유효%	누적%
유효 아니다	3	5.0	5.0	5.0
보통이다	10	16.7	16.7	21.7
그렇다	30	50.0	50.0	71.7
매우 그렇다	17	28.3	28.3	100.0
합 계	60	100.0	100.0	

50%가 그렇다, 28.3%가 매우 그렇다 대답한 것으로 보아 예배 학교 후에 교인들이 각자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가정예배는 힘들어 하고 있으면서도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배 학교의 영향도 있지만 습관화 되는 있는 개인기도의 영향도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나는 예배 학교 후에 주일이 기다려지고 있다.

<표17> 예배학교후의 주일에 대한 마음가짐

	빈도	%	유효%	누적%
유효 아니다	0	0.0	0.0	0.0
보통이다	5	8.3	8.3	8.3
그렇다	45	75.0	75.0	83.3
매우 그렇다	10	16.7	16.7	100.0
합 계	60	100.0	100.0	

75%가 그렇다. 16,7%매우 그렇다 대답한 것으로 보아 예배 학교 후에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교인들의 마음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주일 성수의 중요성을 더 인식하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나는 예배 학교 후에도 계속해서 신앙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표18> 예배학교후의 신앙훈련 프로그램

	빈도	%	유효%	누적%
유효 아니다	2	3.3	3.3	3.3
보통이다	2	3.3	3.3	6.7
그렇다	26	43.3	43.3	50.0
매우 그렇다	30	50.0	50.0	100.0
합 계	60	100.0	100.0	

43,3%가 그렇다, 50%가 매우 그렇다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예배 학교 후에도 계속해서 신앙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 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예배 학교를 마친 후 필자는 교인들로부터 꾸준한 신앙 성장을 위해 신앙훈련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았다. 그리고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이 되기를 바라는 교인들의 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런 결과는 신앙 성장을 바라는 교인들의 갈망이라고 할 수 있겠다.

#### 예배 학교 세미나 후의 변화

교회 성인교육에 대한 신앙 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예배 학교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에 은성교회는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을 실시 한 후에 일어난 변화는 무엇보다 신앙의

열정과 기도 회복을 위하여 매주 금요기도회 참석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또한 실험 대상이었던 성가대원 4명과 청년 20명의 예배 자세가 상당히 신중해졌으며 그들의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당히 깊이 체험하고, 주변의 성도들과 함께 덕을 나누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예배학교를 매년 봄학기, 가을학기로 년 2회 지속성을 갖고 진행하겠다는 결정까지 내리기도 하였다. 또한 신앙의 실천을 위해 나오다가 낙심한 사람들을 찾는 '잃은 양 찾기' 캠페인을 벌이며 매주 주일 3부 예배 후 청년임원중심으로 전도활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급격한 변화는 볼 수 없지만 잔잔히 변화되어서 교회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 평가

필자는 은성교회에서 7년간 부교역자로 사역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성장의 키가 바로 말씀과 예배를 통한 회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교회 교인들이 더욱 신앙의 회복과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임재를 체험하며 예배를 통해 삶의 변화를 이루어 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 성인교육 프로그램보다 교회의 본질인 예배를 통한 신앙성숙을 위해 예배학교를 개설하게 되었다. 물론 담임목사님의 허락과 협력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타당성과 영향력을 논하기 전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개인적으로 큰 도전이었고, 좋은 기회였다고 말하고 싶다. 더 나아가 은성교회에 획기적인 일이라 말할 수 있다. 필자는 위의 논문 결과를 통해 담임목사님의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 당회원 및 위원회의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 참여 교인들의 평가를 기술해

보고자 한다.

### 목사의 평가

이번 은성교회 교인 40명 성가대원들과 청년 20명들의 성인교육 프로그램 일환으로 예배학교를 운영한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찾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긍정적인 평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교인들의 정적인 신앙 태도가 동적인 신앙 상태로 바뀌게 되었다. 노트에 말씀을 적기도 하고, 일찍 앞좌석에 앉아 기도하기도하고, 미리 성경말을 찾아 읽고 예배를 준비하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 생업의 실패를 안고 있는 많은 교우들이 등록한 교회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통해 승리하고자 하는 신앙의 용기를 주는데 있어 예배 학교는 참 좋았다는 평가를 하고 싶다. 때로는 영적 패배감에 빠져 있던 자신의 삶을 다시금 예배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다시금 예배속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회복되었고, 도전의식도 새록새록 생기는 마음의 고백을 듣기도 하였다. 받아들이는 대상 연령층의 차이가 있어서 반응은 다르지만 참석한 이들의 모습을 볼 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예배자의 자세를 갖출 수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하고 싶다. 둘째는 예배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식어진 교회를 향한 열정이 다시 회복된 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교회의 소중함을 알게 된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함께 찬양을 하며, 교육받으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려는 갈망함이 세미나를 통해서 생겼기 때문이다. 셋째는 예배 학교를 프로그램을 통해 신앙의 시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었다는 평가이다. 선교사적인 마인드로 가정과 직장에서 신앙생활하려는 이들의 열정이 생성되었다는

이야기 이다. 모든 중심을 예배 중심 안에서 해석하려는 시각의 변화인 것이다. 넷째는 예배 학교를 통하여 교인들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게 된 장점이 생겼다. 교회가 점점 기업화 되는 상황 속에서 교회안의 성도들끼리 서로 더욱 중보하며, 말씀을 통해 나눔을 하고, 찬양 속에서 위로를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각자가 얼마나 공동체 안에서 바르게 서 있어야 하는지를 발견하는 교인들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 부정적인 평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60년의 전통을 가진 교회의 성격 상 예배 학교를 통해 신앙 회복의 필성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예배 학교를 통해 예배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 시간에 대표기도를 하는데, 여전히 예전처럼 10분이 넘도록 길게 기도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다. 셋째로 예배가 거룩한 생활로 이어지지 못하고, 예배와 생활이 분리되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서 세상에 나아가 구별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고, 주초 문제를 등한시 여기고 있는 결과인 것이다. 이중적인 생활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채 세상과 타협하는 이들이 몇몇이 있었다는 결과이다. 넷째, 예배 안내 위원이 예배 전에 일찍 나와 준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계속 있다는 점이다. 지역적으로 논밭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지만 일찍 준비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이와 같이 담임목사님은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을 평가해 주셨다. 계속적으로 은성교회 교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무엇을 더 보충해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점점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예배 학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 위원회의 평가

세미나를 마치고 설문지를 보여드리고, 5분의 당회원 장로님중 3명의 장로님이 참석하시고 평가해주신 내용을 기록해 보고자 한다.

질문 1. 예배 학교 프로그램이 은성교회에 좋은 신앙훈련이라 생각하며, 또한 주일성수에 좋은 영향을 준 프로그램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평가를 보면 먼저 좋은 신앙훈련이다 60%가 매우 그렇다. 40%가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주일성수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80%가 매우 그렇다. 20%가 그렇다고 대답한 것 평가되었다. 이것으로 보아 예배 학교 프로그램이 좋은 훈련프로그램으로써 주일 성수에 좋은 영향력을 준 프로그램이 된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질문 2. 예배 학교 프로그램이 예배 분위기와 예배 태도에 좋은 영향을 준 프로그램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평가를 보면 예배 분위기에서 100%가 매우 그렇다로 대답하였고, 예배 태도가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질문에 60%가 매우 그렇다. 40%가 그렇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왔다. 이를 보아 예배 학교 프로그램이 예배 분위기, 예배 태도에 좋은 프로그램이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질문 3. 예배 학교 프로그램이 기도와 찬양에 좋은 신앙훈련 프로그램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평가를 보면 80%가 매우 그렇다. 20%가 그렇다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예배 학교 프로그램이 기도생활에는 매우 만족과 변화를 준 것은 아니지만 좋은 프로그램이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질문 4. 예배 학교 프로그램이 예배안내위원 봉사에 좋은 신앙훈련 프로그램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평가를 보면 60%가 매우 그렇다. 40%가 그렇다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예배 학교 프로그램이 예배 안내위원 봉사에 좋은 프로그램이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교육을 통해 생겨서 일거라 생각된다.

질문 5. 예배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예배 훈련 받은 것에 만족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평가를 보면 100%가 매우 그렇다. 라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예배 학교 프로그램이 예배 훈련 받는 것으로 교인들의 신앙교육으로 좋은 프로그램으로 평가하고 있다.

위원회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위원회는 당회 장로님들로 구성되어 교회 운영상으로 바라본 관점이기 때문에 어쩔 행동영역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관찰하였을 것이다. 이번 예배학교를 진행한 뒤, 아마도 참여한 교인들의 주일성수하는 자세, 예배드리는 자세, 예배 분위기, 기도의 열정 등을 좋게 평가하고 있었고, 반면에 봉사영역부분은 60%로 다른 항목에 비해 긍정성이 적은 이유로 봉사영역은 조금 아쉬움을 가졌다.

이상으로 필자는 위원회의 평가를 보면서 예배 학교 프로그램의 당위성을

이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예배 학교를 통해 신앙 회복에 대한 그들의 소망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회복을 바라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알 수 있었다.

### 교인들의 평가

필자는 세미나 마친 2주 뒤에 주일 저녁예배를 마치고 교인 35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서도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교인들이 실제적으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질문을 중심으로 다음 5가지 질문을 해 보았다.

질문 1. 예배 학교 프로그램이 은성교회에 좋은 신앙훈련이라 생각하며, 또한 주일성수에 좋은 영향을 준 프로그램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평가를 보면 먼저 신앙성장의 좋은 영향이었다는 것에 29%매우 그렇다, 43%가 그렇다, 14%가 보통이다 14% 아니다 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 예배 학교 프로그램을 다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주일성수에 좋은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 29% 매우 그렇다, 51%가 그렇다, 14%가 보통이다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 예배 학교 프로그램이 주일성수를 하는데 분명 생각과 자세가 변화를 주어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질문 2. 예배 학교 프로그램이 예배 분위기와 예배 태도에 좋은 영향을 준

프로그램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평가를 보면 예배 분위기에 29%가 매우 그렇다, 57%가 그렇다, 14%가 보통이다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고, 예배 태도가 달라졌는지에 대한 평가를 보면 51% 매우 그렇다, 43%가 그렇다, 6%가 보통이다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 예배 학교 프로그램이 교인들의 예배의 분위기를 좋게하였고, 예배태도에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질문 3. 예배 학교 프로그램이 기도와 찬양에 좋은 신앙훈련 프로그램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평가를 보면 29%매우 그렇다, 57%가 그렇다, 9%가 보통이다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 예배 학교 프로그램이 교인들의 기도생활에는 크게 변화와 아주 좋은 영향은 주지 못한 것으로 평가 되었지만 57%가 긍정적인 '그렇다'라고 평가했기에 교육이 기도생활에도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도의 영향을 주듯이 찬양에서도 이 질문에 대한 평가를 보면 43%매우 그렇다, 43%가 그렇다, 14%가 보통이다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 예배 학교 프로그램이 찬양대 봉사에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도와 찬양에 다소 긍정적인 효과를 이뤄냈다고 말할 수 있다.

질문 4. 예배 학교 프로그램이 예배안내위원 봉사에 좋은 신앙훈련 프로그램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안내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평가를 보면 14% 매우 그렇다, 43%가 그렇다, 29%가 보통이다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 예배 학교 프로그램은 예배 안내위원

봉사영역에서는 그다지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봉사영역은 또 교회에서 중요한 섬기과 사랑의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이부분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교육그이상의 적극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질문 5. 예배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예배 훈련 받은 것에 만족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평가를 보면 71% 매우 그렇다, 29% 가 그렇다,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 예배 학교 프로그램을 훈련받는 것에 상당히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필자는 교인들의 평가는 보면서 교인들의 신앙 회복 및 성장을 위한 그들의 영적 갈망과 가능성을 보면서 그 열망을 행동으로 옮기는데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필자가 교인들의 이 평가를 잘 참고하여 보완하여 교인들에게 신앙훈련의 장을 열심히 제공한다면 전보다 더 좋은 신앙인으로 발전하여 성인교육으로 인한 가정과 사회 국가에 좋은 인격체가 되리리라 확신한다.

## 배운점

필자는 본 논문 연구를 통해 예배가 신앙의 출발이 될 뿐만 아니라 예배가 살아야 교회도 살 수 있고, 예배가 부흥되어야 교회도 부흥하며, 예배가 살아가 개인 신앙도 살고, 사회성을 가진 성인으로서 정체성을 다시금 발견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특히 예배 교육 프로그램이 교인들의 신앙 성장 및 회복을 도모하는데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 하였다. 그리고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으로 이어지기 위해 매년 봄학기, 가을학기로 예배학교 라는 교육을 실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급성장한 교회일수록 더 기초가 교회의 본질인 예배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런 상황속에서도 하나님을 말씀과 예배 속에서 교감하며 체험할 때 신앙인으로 정체성을 잃지 않고 더욱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 것을 기대해 본다. 필자가 배운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고, 신앙의 진보를 위해 더 노력하려고 하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필자의 시각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강하게 자리 매김하게 된 것이다. 필자가 예배 학교를 개설하고 신청을 받으면서 반 강제성을 띄었지만 진행되는 과정속에서 성가대 중직자들과 청년기시대를 보내는 청년부 학생들을 훈련하면서 진정한 예배란 무엇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육을 통하여 알아가자 그들만의 소신과 자부심을 갖고서 교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잘 수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맡겨진 사역이 일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이다 는 것으로 해석하며 교회생활과 사역을 감당할 때 그들 안에서 열정과 역동성이 발견하는 기회였던 것 같다.

그러므로 필자가 본 논문을 통해 배운점은 형식화 된 예배, 타성화 되어 있는 교회는 결코 변화와 성장, 성숙을 이뤄낼 수 없고,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이름뿐인 교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인교육의 여러방법중 예배학교를 진행하는 것이 참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논문을 통하여 배우게 되었다.

## 제 VI 장

### 결 론

#### 요약

첫째는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성인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의 방법중 예배학교를 통하여 교인들의 신앙 성장 및 신앙 회복을 위한 예배 교육의 중요성을 필자 스스로 확립하고 확실하게 인식하게 된 것이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

둘째는 60년 된 역사를 지닌 은성교회도 예배 학교를 통해 얼마든지 성장에 더 깊이 있는 성장을 할 수 있고, 변화와 회복을 할 수 있다는 소망을 붙여 넣어 주려고 하였다. 우리 교회도 좋은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데 방해하는 장애들을 충분히 극복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하였다.

셋째는 형식화 되어 있고, 타성에 젖어 있는 교인들의 신앙이 예배 학교를 통해 회복을 받아 동적인 데서 정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하였다. 신앙 회복을 위한 통로로 예배 교육의 당위성을 이해시키려고 하였다.

넷째는 예배가 살면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고, 중요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먼저 지각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그 다음은 가정을 회복시키고, 사회와 일터가 더욱 풍성한 삶으로 살아 갈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다섯째는 예배 학교를 실시한 후에 교인들 스스로 신앙 회복 프로그램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려고 하였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과 같이 교인들에게 신앙 회복 프로그램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노력하였다.

필자는 예배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모양으로든지 교인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변화 되는데 초점을 맞추고 시도해 보았다. 그 결과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은성교회와 같이 오랜 전통 교회도 얼마든지 타성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필자가 예배 학교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프로그램 자체가 교인들을 새롭게 하거나 성장시키거나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아도 목회자와 교인들 간에 영적으로 서로 연결되지 않거나 영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거나 영적 친밀감이 생성되지 않으면 아무 영향력도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은성교회에서 부교역자로 7년 동안 교인들과 좀 더 원했던 것은 이런 프로그램이 몇 개고, 얼마나 많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프로그램을 사용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수 있다고 외친 스가라의 외침처럼 필자도 교인들과 함께 계속해서 영적 친밀감을 유지해가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가운데 신앙 회복 및 성장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실시해 간다면 이전 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인한다.

## 제언

필자는 은성교회를 중심으로 예배 학교를 통한 신앙 회복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가능성이라는 밝은 결과도 얻었지만 보완해야 할 부족한 부분도 발견할 수 있었다. 좀 더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제언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교회는 예배를 통해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예배 학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예배 의식을 가져야 한다. 예배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과 결코 인간이 예배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하나님만 예배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경배하는 예배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인들로 하여금 바른 예배 의식을 가지도록 지속적으로 예배 훈련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둘째, 예배 생활의 문제로서 교회와 예배와 생활이 둘이 아닌 하나 되는 신앙 토대를 만들어 줌으로서 이것이 신앙 성장과 신앙 회복의 물꼬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예배가 교회 안에서 뿐 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덕스러운 예배 생활을 할 때 교회도 살고, 개인 신앙 부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교인들이 체득할 수 있도록 필자가 더 노력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은성교회 교인들의 영적 성장에 맞게 좀더 세부적으로 예배 학교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처음 실시해 본 프로그램이라 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고려하면서 진행해 보았지만 교인들의 신앙 상태와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잘 살피고 연구함으로써 은성교회 교인들의 신앙 성장과 회복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은성교회에 맞게 재구성 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다.

이상과 같이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은성교회 교인들의 신앙 성장과 신앙 성숙을 위해 무엇보다 성인교육을 위해 필자 스스로도 더 많은 노력과 연구 자기 개발이 필요하다는 도전을 안고 본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 부록1.

은성교회 성가대원(40명) 청년(20명) `대상

“예배 학교” 세미나를 통한 성인교육에 미치는 영향

교제: 진정한 예배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

예배학교

- 온누리 예배사역 본부 지음 / 강사: 김영진목사(온누리교회 예배본부장)

여는 글 6

□예배학교□ 활용법 8

1과

예배란 무엇인가?

10

예배의 의미

예배의 목적

예배의 원리

예배의 방법

4과

예배와 삶

예배의 결과

새로운 성전

생활의 적용

부록. 예배일기 119

부록 1-1. 1과

예배의 의미와 원리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자의 기도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기 위해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저를 세워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깨닫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배자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정확한 예배의 의미와 원리를 알 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다.

Q. 예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알고 있는 혹은 알아왔던 예배의 의미를 적어 보십시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바로 떠오르는 문장을 적으십시오.

예배란?

---

예배의 의미

1] 엿드리다

우선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성경적인 예배의 의미는 '엿드리다'입니다.

시편 99편 5절을 읽어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거룩하시도다 (시 99:5)

시편 99편 5절은 하나님의 명령이 담긴 구절입니다. 무엇에 곤한 명령입니까?

바로 예배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사용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하'입니다. 이 단어는 '엿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장 10절에도 같은 의미의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마 4:10)

마태복음에 사용된 '경배'에 해당하는 단어는 '프로수퀴네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 또한 '엎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Q.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Q. 당신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적어 보십시오.

-----

## 2] 섬기다

성경에서 배우는 예배의 둘째 의미는 '섬기다'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개역개정과 표준새번역 버전으로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질문에 답을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출 3:12, 개역개정)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출 3:12, 표준새번역)

Q.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나타난 '섬기다'의 히브리어는 '아바드'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예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성경은 '섬기다'로 번역했으나 표준새번역, 공동번역, 쉬운성경, 우리말성경 등은 '예배하다'로 번역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을 읽고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어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마 4:10)

Q.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자신의 생각을 적어 보십시오.

-----

'섬기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라트류오'는 하인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예배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는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섬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예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정리하면 예배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빈칸에 적어 보십시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 이며,  
 하나님을 -----입니다.

#### 예배의 목적

교회의 모든 활동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 세미나는 성경 공부가 목적이며 기도회는 기도가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할까요? 아래의 질문에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적어 보십시오.

Q. 당신은 어떤 목적으로 예배에 참석합니까?

-----

이 질문을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라고 대답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찬양을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진정한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분명한 목적을 이해하고 예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1>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다윗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장막안에 두고 제사를 드립니다. 레위 사람들을 뽑아 궤 앞에서 섬기게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런 다음 다윗은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대상 15~16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그 선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대상 16장 29절을 읽어 보고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 여호와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 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대상 16:29)

Q. '여호와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참조 구절들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적어 보십시오.

-----

-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시 50:23)

-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눅18:43)

-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므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시 115:1)

Q. 오늘날 예배의 모습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위험한 요소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십시오.

-----

예배는 받기 위함이 아니라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받기 원하는 모든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받게 되는 예배의 결과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께만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진정한 찬양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2> 하나님께 삶을 드리기 위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단순히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종교적인 모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예배는 의무와 형식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배는 점점 더 본질과 멀어져서 결국 형식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 정확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읽어 보십시오.

-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

Q.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은 무엇입니까?

-----

Q. 그렇다면 영적 예배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롬 12:2 참조)

-----

-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Q.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몸으로 순종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십시오.

-----

예배의 목적은 삶을 드리기 위함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과 공간에서 드러지는 예배가 끝나면 이때부터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예배의 원리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것들에는 다양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식물이 자랄 때도 자연의 원리들이 있듯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할 때 예배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 (1) 창조 목적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배의 원리를 이해하려면 이 질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창세기 1장 26~27절에 나와 있습니다.

-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 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26~27)

Q.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성경은 다스리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다스립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와 다르게 독특한 방법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읽어 보십시오.

-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창 2:7) -

Q.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와 다르게 인간에게만 독특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 인가도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따라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 <2> 관계단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원래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데 막힘이 없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해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3~24절의 말씀을 읽어 봅시다.

-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창 3:23~24)

Q.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후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

에덴동산에서 지낼 수 없다는 것은 단순히 거주지가 바뀐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누리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분과 대화할 수도 없습니다. 소통이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예배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 <3> 관계회복

하나님께서서는 자신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셨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짐승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물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아벨이 그렇게 제사를 드렸고(창 4:3) 노아,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도 짐승을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제사로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3~14절을 읽어 보십시오.

-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엡 2:13~14)

Q. 누구 안에서 무엇을 통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가까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

Q. 에베소서 2장 14절의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죄로 인해 관계가 단절되어 멀리 있던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단절된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과 10장은 그 의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의 구절들을 읽어 보고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히10:10)

Q. 우리가 거룩하게 된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

히브리서 10장 14절을 읽어 보십시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히 10:4)

Q. 거룩하게 된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물의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피는 제사장 자신의 죄를 위한 희생의 피이며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위한 것입니다.(히9:7) 그러나 이러한 제물과 제사는 사람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또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며 어린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또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심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을 읽어보십시오.

-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막 15:38)

Q. 위의 사건은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

Q. 성전 휘장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

Q.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

예배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그 관계를 스스로 깨뜨렸습니다. 이 일을

가장 안타깝게 여기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지은 인간을 끝까지 포기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제물로 삼으심으로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을 찢으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담대히 나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예배의 방법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분명한 예배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예배에 대해서 언급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의 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을 읽어 보십시오.

-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요4:20) -

Q. 수가 성 여인의 질문은 무엇에 대한 질문입니까?

-----

Q. 만약 당신이 이리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물어 보겠습니까?

-----

거의 모든 사람이 자신이 가장 바라는 것, 가장 궁금한 것을 질문할 것입니다. 미래가 궁금한 사람들은 앞날의 일에 대해 물을 것이고, 인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해결책을 물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섯 번 결혼한 수가 성 여인의 질문은 인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배였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답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 1. 누구를 예배하는가?

- 우리는 누구를 예배해야합니까? 오늘날 이 질문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예배하는지 모른 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 대상인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을 읽어 보십시오.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 4:20)

Q. 예수님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

Q. 그렇다면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히 11:6)

-----

-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 -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 2> 어떻게 예배하는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으로 예배를 시작했다면 이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 4:24) -

예수님은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것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 첫째, 영으로(In Spirit)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영으로 예배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이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줍니다. 다음 구절을 읽어 보고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 주는 영이신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 3:17) -

Q. 당신은 예배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드리는 예배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 함으로  
너희는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갈 5:17) -

Q.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볼 때 당신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Q. 영으로 예배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예배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나는 거룩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만날 수 있도록 영적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진리로(In Truth)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하나의 예배 방법은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것과 함께 진리로 예배하는 것 역시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진리란 첫째,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다음 구절을 읽고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

Q. 요한복음 14:6절에서 진리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시작이며 끝입니다.

예배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의 구절을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 17:17) -

예수님께서서는 진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어떻게 해달라고 구하십니까?

-----

Q. 그렇다면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생각을 적어 보십시오.

-----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 가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예배가 깊어집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3> 언제 예배하는가?

수가 성 여인의 예배에 대한 질문은 장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가 예배드리는 장소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요 4:20).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23절을 읽어 보십시오.

-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요 4:21~23)

Q. 장소를 물어보던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

Q. 삶 속에서 '지금'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개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장소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은 시간으로 대답하십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특정한 장소에 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생각이 틀렸음을 말씀하십니다. 예배할 때가 곧 이르는데 그때는 바로 이때라고 대답하십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습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지금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록1-2. 4과 /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과 의미

예배와 삶

예배자의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호흡하는 모든 순간이,

입술로 말하는 모든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영광 중에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봉헌을 통해 삶을 드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축도가 끝나기를 기다리던 교인들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과 다음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교회 공동체의 예배를 드린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 끝나면 예배도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끝났을 뿐

이제 삶으로 예배하는 개인의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삶 전체가 예배의 삶으로 온전히 드러질 때

우리는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Q. 삶 속에서 예배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생각 속에 떠오르는 것을 적어 보십시오.

-----

예배의 결과

[1] 순종의 삶

예배를 잘 드렸다면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엮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때 삶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갔을

때 더 이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삶의 예배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을 읽어 보십시오. 이사야의 이야기를 통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 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사 6:1)

Q. 이사야는 환상 중에 어디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

Q.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반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사 6:5 참조)

-----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으로다 하였더라(사 6:5)

다음의 구절을 읽어 보십시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사 6:8)

Q.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웃시야 왕이 죽던 때라면 영적으로 암울한 시기를 말합니다. 웃시야 왕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초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적으로 바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점점 부강해졌고 정치적, 군사적으로도 안정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교만해지더니 결국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분향할 수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직접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몹시 노하셔서 그에게 문둥병을 내리셨습니다. 이후 그는 궁궐에 갇혀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때 이사야는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 임재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결과입니다. 예배하면 죄가 드러나 회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입술이 더러운 사람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제단 숯불을 입에 대시며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놀라운 순종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를 통해 우리를 이렇게 부르기 원하십니다.

[2] 복음전과

변화된 예배자의 삶은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된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다음의 구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28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요 4:28~29)

Q.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는 어떻습니까?(요 4:18 참조)

---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요 4:18)

Q.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요 4:39 참조)

---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요 4:39)

Q. 무엇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변화시켰다고 생각합니까?

-----

Q. 사마리아 여인의 삶의 변화는 마을 안에 어떤 일을 일으켰습니까?

-----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 피약별로 살이 타 들어갈 듯한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온 여인입니다. 과거의 삶으로 인해 너무나 큰 상처를 입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놀랍게도 이런 삶을 사는 중에도 예배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 주셨고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여인은 이때 변화되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예배하면 삶이 변화됩니다.

### 새로운 성전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전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세운 교회 건물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읽어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전 6:19)

Q. 바울 사도가 고린도교회의 어떤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고전 6:15참고)

- 
15.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6.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고전 6:15~16)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고전 6:17)

Q. 주와 합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창 2:24, 요 17:21 참조)

---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창 2:24)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 17:21)

바울의 결론은 다음의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6:20)

Q. 바울 사도의 결론을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

Q.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라고 생각  
합니까?

---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전인 우리는 우리의 몸을 드려 삶 속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러운 죄와 연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 생활의 적용

우리의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예배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삶과 예배를 분리시켰습니다.

예배는 교회 건물에서만 드리는 것으로 변질시켜서 예배의 삶을 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삶이 없는 예배는 다른 종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종교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기력하고 당하고 있을 순 없지 않습니까? 답은

한가지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 [1]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을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 자체로 훌륭한 찬양이 됩니다. 길을 걸으며 혹은 달리는 차 안에서 찬양의 노래를 들으며 하나님을 마음으로 높이는 것도 찬양의 행위인

것입니다.

Q. 당신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구체적인 방법과 함께 적어 보십시오.

-----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71편 8절과 35편 28절을 읽어 보십시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시 71:8)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시 35:28)

Q. 시편 기자는 몸의 어느 부분을 사용하여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까?

-----

Q. 어떻게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시편 44편 8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셀라) (시 44:8)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고 드러내고 나눈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종일토록 찬양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자랑하십시오. 그러한 찬양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2] 삶에서 찬양의 제사드리기

히브리서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입술의 고백 외에 새로운 한 가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13장 15~16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15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6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히 13:15~16)

Q. 히브리서 13장 15절이 말하는 그 이름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

Q. 그렇다면 찬송의 제사는 무엇을 말합니까?

-----

Q.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

찬양의 제사는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을 행하며 나눌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찬양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3]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베드로전서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 9절과 12절을 읽어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 2:9)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벧전 2:12)

Q.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

Q. 베드로 사도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

Q. 베드로 사도의 제안대로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단순히 찬양의 노래를 열심히 듣고 부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선한 행실로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비방하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 소그룹 나눔을 위한 질문 -

1. 당신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나눠 보십시오.
2. 일상에서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서로 나눠 보십시오.
3. 당신은 선행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눠 보십시오.

- 적용을 위한 제안 -

1. 하루 동안 찬양의 언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를 예배일가에 기록해 보십시오.
2. 예배를 통해 마음으로부터 회개가 일어나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예배중에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예배일기에 적어 보십시오.

3. 삶에서 선행과 나눔으로 찬양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새롭게 결단하고  
행하십시오.

## 부록. 예배일기

### 활용방법

예배일기는 삶의 예배를 이루기 위한 예배 훈련입니다. 예배학교 기간 동안 매일 예배일기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예배의 삶을 돌아봅니다.

#### 1. 찬양의 고백

오늘 내가 고백하고 싶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을 기록합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성품을 적습니다. 혹은 떠오르는 찬양곡의 가사를 적어도 좋습니다.

#### 2. 예배의 말씀

매일<예배학교>를 통해 배운 성경 구절들을 한 구절씩 묵상합니다. 페이지 마다 있는 구절을 천천히 반복해서 여러 번 읽습니다. 말씀을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 3. 예배를 위한 묵상

읽은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묵상한 내용을 예배일기에 기록합니다.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나 정리된 생각을 기록합니다. 또 자신의 예배를 돌아보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기록합니다.

#### 4. 예배를 위한 적용

묵상을 통해 순종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기록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생활 속에서 순종하며 적용할 때 변화가 시작되고 또 지속됩니다. 예배의 삶을 위해 적용해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십시오.

#### 5. 기도

자신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기록하십시오.

#### 6. 주일용

-주일에는 주일요 예배일기를 따로 두어 기록합니다.

- 찬양의 고백: 주일예배 시간에 고백한 찬양의 내용 중에 기억이 남는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설교 요약: 설교 본문과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록하고 묵상하며 적용합니다.

부록2. 예배일지 양식

01

\_\_\_\_\_년 \_\_월 \_\_일

찬양의 고백

예배의 말씀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시 99:9)

예배를 위한 묵상

예배를 위한 적용

기도

## 부록3. - 예배학교 설문지 -

1. 예배 학교가 내 신앙 회복에 영향력을 주었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아니다

2. 예배 학교가 내 예배 생활에 유익을 주고 있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아니다

3. 예배 학교가 바른 예배자로 세워주는 데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아니다

4. 예배 학교를 통해 예배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아니다

5. 예배 학교를 통해 바른 예배자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아니다

6. 예배 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졌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아니다

7. 예배 학교를 통해 성찬과 세례의 참 의미를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였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아니다

8. 예배 학교 후에 예배 분위기가 더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아니다

9. 예배 학교 후에 대표기도자의 기도 시간이 간결해졌다고 생각한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아니다

10. 예배 학교 후에 예배시간에 늦지 않게 와서 예배를 드렸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아니다

11. 예배 학교 후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아니다

12. 예배 학교 후에 예배에 대한 민감성이 생겨서 더욱 진솔한 예배를 드린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아니다

13. 예배 학교 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아니다

14. 예배 학교 후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아니다

15. 예배 학교 후에 매일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 하고 있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아니다

16. 예배 학교 후에 주일이 기다려지고 있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아니다

17. 예배 학교 후에도 계속 신앙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아니다

## 참고 문헌

## 외국어서적

- Bettenson, Henry. *Documents of the Chistian Church*. New York: Oxford, 1963.
- Gaddy, Welton. *The Gift of Worship*. Nashville: Broadman, 1992.
- Marthr, Justin. *The First Apology*. New York: Chistian Heritage, 1948.
- Maxwell, William D. *A History of Chistian Worship*.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2.
- Underwod, Horace Grant. *The Call of Korea*. New York: Fleming H. Revell Co, 1908

## 번역서적

- Dennis, John Randall. *Living Worship: A Biblical Guide to Making Worship Real In Your Life*. 송상현 역. *샤카, 살아있는 예배*. 서울: 토기장이, 2004.
- Erickson, Millard. J. Erickson. *The Doctrine of Church*. 이은수 역. *교회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 Frame, John M. *Worship in Spirit And Truth*. 김광열 역.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0.
- John, R. W. Stott, *The Living Church*. 신현기 역. *살아있는 교회*. 서울: IVP, 2010.
- Kendrick, Graham. *Worship*. 채슬기 역.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 사역*. 서울: 비전북출판사, 2002.
- Kung, Hang. *Was Ist Kirche?*. 이홍근 역. *교회란 무엇인가?* 서울: 분도출판사, 1992.
- MacArthur, John. *True Worship*. 한화룡 역. *참된 예배*. 서울: 두란노서원, 1986.
- Malphurs, Aubrey. *Adnanced Strategic Planning*. 남성수 역. *침체된 교회 부흥전략*. 서울: 아가페, 2000.
- Maxwell, John C. *The 21 Indispensable Qualities of a Leader*. 전형철 역. *탁월한 리더의 성공원칙 21*. 서울: 청우, 2005.
- Platt, David, *Radical Together*. 최종훈 역. *래디컬 투게더*. 서울: 두란노 서원, 2012.
- Segler, Franklin M. *Christian Worship*. 정진황 역. *예배학 원론*. 서울: 요나단 출판사, 1979.
- Sally, Morgenthaler. *Worship Evangelism*. 임하나 역. *이것이 예배다*. 서울: 하늘사다리, 1998.

Sally, Morgenthaler. *Worship Is Verb*. 황인걸 역. *살아있는 예배를 위한 8가지 원리*. 서울: 예본, 1999.

Westerhoff 3. John H.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정웅섭 역. *교회의 신앙교육*.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83.

Westerhoff 3. John H. *Sacraments as GOD'S SELF- GIVIN*. 김운용 역.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선물: 성례전*.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6.

### 한국어서적

강희천. *성인종교교육*. 서울: 연세대 출판부, 1988.

김광률. *장년부 학습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 출판부, 1980.

김득룡. *현대교회 예배신강*. 서울: 총신대학부 출판부, 1985.

김재은. *성인교육론*. 서울: 성광문화사, 1990.

기념논문집 출판위원회. *교회 십자가 목회*.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8.

김세광. *예배와 현대문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김소영. *예배와 생활*. 서울: 기독교서회, 1982.

김연택. *건강한 교회와 예배*. 서울: 프리셋트, 2000.

김영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 강론*. 서울: 영문출판사, 1996.

김인수. *한국기독교회의의 역사*.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 출판부, 1998.

김진복. *한국장로교회*. 서울: 콤파출판사, 1995.

김현진. *공동체 신학*.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1998.

명성훈. *예배학교*.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1.

박근원. *오늘의 예배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박은규. *예배의 재발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백동섭. *새 예배학*. 서울: 도서출판복음, 1983.

설은주. *코이노이와 신앙교육*.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0.

- 양정식. *성실한 마음 공교한 손*. 서울: 예술, 2011.
- 윤진. *성인, 노인, 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89.
- 은준관. *기독교교육 현장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8.
- 이명희. *현대예배론*. 서울: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2011.
- 임영택, 나형석 공저. *예배와 교육*, 서울 종로서적 성서출판, 2000.
- 임창복, 이연구, 최명희 편저. *교회 노인교육*. 서울: 한국기독교교육교역연구원, 2008.
- 장성배.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세워라*. 서울: KMC, 2009.
- 정승훈. *말씀과 예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정장복. *예배와 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9.
- 정장복. *현대사회와 예배설교사역*.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2.
- 조기연. *한국교회와 예배갱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 총회국내선교부 예배학교 편.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2.
- 허도화. *한국교회 예배사*.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출판부, 2003.
- 호남신학대학교. *교회란 무엇인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5.

## 논문, 잡지

- 김남준, "목회적 관점으로 본 교회의 공동체성" 15, *목회와 신학*, 1999, 72-81.
- 김인배. "예배 회복 프로그램과 총동원 전도를 통한 교회 공동체 활성화 방안" 미간행목회 신학박사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1.
- 김태호. "교회에서의 성인교육 기초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1999.
- 김현수.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0.
- 류인우. "한국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에 대한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1997.

- 백운필. "교회의 성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실태 조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93.
- 서동일. "뉴 밀레니엄 시대의 교회 성인교육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1999.
- 이지연. "교회 성인교육을 위한 성경공부 교재 분석에 관한 연구"(성결교회구역교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1996.
- 임선규. "예배자학교를 통한 신앙 회복 및 활성화에 대한 연구" 미간행 목회 신학 박사  
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13.
- 정민호. "성숙한 크리스찬을 위한 교회교육" -성인교육을 중심으로 /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 신학대학원, 1992.
- 채영남. "교회의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예배에 대한 연구." 미간행목회신학박사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06.
- 홍윤기. "세에덴교회의 기독교 교육에 대한 분석적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2004.

## V I T A

## PERSONAL DATA

Full Name: Jeehoon Song

Place and Date of Birth: Jeollanam-do, Sunchon, South Korea, August. 25, 1979

Parent's Names: Mui Song and jeekmi Lee

##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b>Sunchen Geumang High School</b> Suncheon, Jeollanam-do South Korea	Diploma	Feb. 12, 1999
Collegiate:	<b>Chonnan Nationa University</b> Jeollanam-do, South Korea	B.A.	Feb. 3, 2004
Graduate:	<b>Honam Theological University</b> Jeollanam-do, South Korea	Th. M.	Feb. 9, 2010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Jeehoon Song

Name typed

May 6, 2017

Date